

소사별

2021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5



봄소식

노 승 연

꽁꽁언 대지
입춘, 우수, 경칩지나
머어언 음지 잔설
어느새 녹아 내리고
공허한 들판위 훈기의 아지랑이
현기증 나게 피어 오르며 지면을 덮는다.

온기 바람결 탄 버석버석한 갈 숲은
초록빛 갈증으로 목말라 하더니
흑암속 자양액 어느새 잔뜩 품어 올려
동절기 내 잉태한 연둣빛, 산고 이겨내며
봄소식 나르기 분주하다.

목이 긴 성급한 여인 닮은 깨끗한 하얀 속살의 목련,
수줍은 노란 미소 산수유, 개나리,

꽃샘 추위로
잔뜩 고열 오른 진달래
붉은 몸살을 앓는다.

소사벌

2021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5



2021년 4월 / 통권 35호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신태식
위 원 박성복, 강기중, 김희경, 이형범, 홍인석
편집 오민영, 최치선, 황수근, 강하늘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번호 031-655-2002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출판 나무기획 031-654-0104

© 2021 평택문화원 ISSN 1739-9556

- ※ 이 책의 게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평택문화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획특집 평택의 나루와 포구

- 04 문헌으로 본
평택의 나루와 포구
- 08 평택지역
물줄기와 나루·포구
- 14 해양 교통의 요지, 평택

평_平채우다

- 20 빛바랜 사진이야기
- 24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28 평택을 품은 이야기
- 32 평택이가 대신
탐방해드립니다
- 36 우리의 미래!
평택성동에게 묻다
- 40 평택은 물이다
- 44 평택시 합창의 역사를 읽다
- 48 협업공간_한치각
- 52 목조각가
- 56 2020 평택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
- 60 제1회 금남 지역문화글짓기
공모전 버금상 수상작

택_澤더하다

- 62 진위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의 일기
- 66 2020 평택야행
- 70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 74 피우치이중계
- 76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웃다리문화촌 '금상' 수상
- 80 평택문화 CAFE
- 84 제7회 노을동요제
- 86 제1회 시민동요부르기
- 88 제8회 대한민국삼봉서화대전
- 92 소사별화보
- 96 평택문화원 소개



편섭포



문헌으로 본 평택의 나무와 포구

장연환 평택학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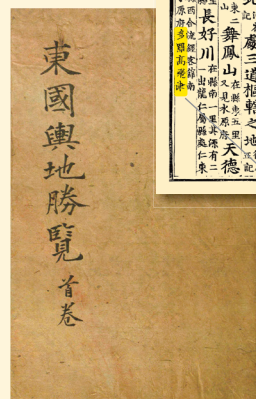
고려와 조선 전기

평택은 서해안과 접하면서 지대가 낮아 수원과 용인, 안성 등에서 발원된 크고 작은 52개의 하천이 진위천과 안성천에 합류되어 평택을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든다. 물길이 많은 만큼 나무와 포구가 발달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곳이 30여 군데에 이른다. 나무는 육로 교통을 이어주는 고리였으며,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었고,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시기에 지방 물류의 중심이었다. 조세로 걷은 곡식도 육로가 아닌 강과 바닷길을 이용하여 중앙으로 운송되었다.

물길이 많은 평택은 사람들의 정착이 시작되면서부터 길과 길,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나무가 생겨났다. 평택 지역의 포구 중 가장 이른 기록은 『고려사』에 등장한 경양포이다. 경양포는 지금의 노양1리로 고려시대 타이포(打伊浦) 또는 편섭포(便涉浦)로 불렸다. 고려 초 지방의 세곡을 개경으로 운반할 필요에 의해 전국에 설치한 13개 조창 중 하나가 이곳에 설치된 하양창이다. 평택 인근 지역과 공주, 청주, 천안 등지에서 거둔 세곡(稅穀)이 이곳에서 서해안을 통해 중앙으로 운반되었다. 조선시대 하양창의 역할은 아산 공세창으로 옮겨갔고, 이곳은



『세종실록지리지』 「진위현」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위현」

1974년 평택호가 조성되기 전까지 어항 역할을 하였다.

경양포가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이용된 것은 아니다. 아산만과 안성천 및 진위천 주변의 사람들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람과 물산(物産)을 이동시키기 위한 여러 포구들이 일찍이 존재했을 것이다. 『고려사』에 유독 경양포가 기록된 것은 세곡 운반을 위한 조운제도 때문이다. 이는 중앙 집권적 통치가 필요했던 당대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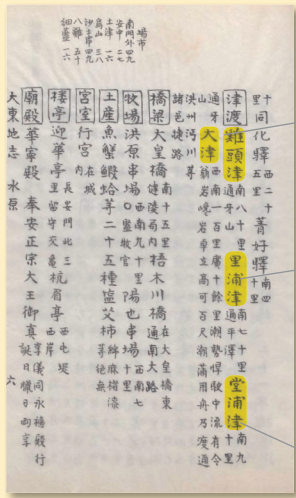
조선 초기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지리적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역시 중앙 정부의 행정과 군사상 필요한 지리적 정보 위주였다. 그래서 포구가 어업 등 지역의 경제생활과 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직산과 평택의 조세를 모아 한양으로 운반했던 경양포와 더불어 고덕면 궁리의 궁안교 아래에 있었던 다라고비진만 발견된다. 이 또한 장호천의 흐름에 대한 설명에 그 이름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는 당시 지방에 대한 지리적 정보 파악 수준이 비교적 낮은 단계였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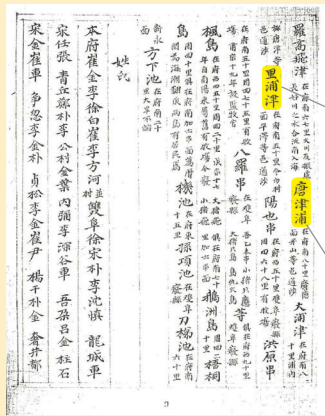
『세종실록지리지』를 저본(底本)으로 삼아 엮고, 이를 다시 증보(增補)하여 1530년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승람)에는 경양포와 다라고비진을 포함하여 당진포(현덕면 신왕1리), 대포진(포승읍 만호리), 이포진(고덕면 방축1리), 계두진(현덕면 권관1리), 오을미곶포(팽성읍 대추리), 신덕포(통북동 신덕마을) 등 평택지역의 포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 위치로 보건대, 이 포구들은 교통로와 어업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승람 역시 이 포구들을 '산천(山川)' 항목에 수록하였다. 포구를 '산천'에 포함시키는 승람의 편찬 체제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읍지(邑誌)의 전형이 되었다.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기존의 이포진이 나오 고 향곶진(향곶포, 진위천과 황구지천이 합류하는 지점)



『대동지』 「수원부」



『수원부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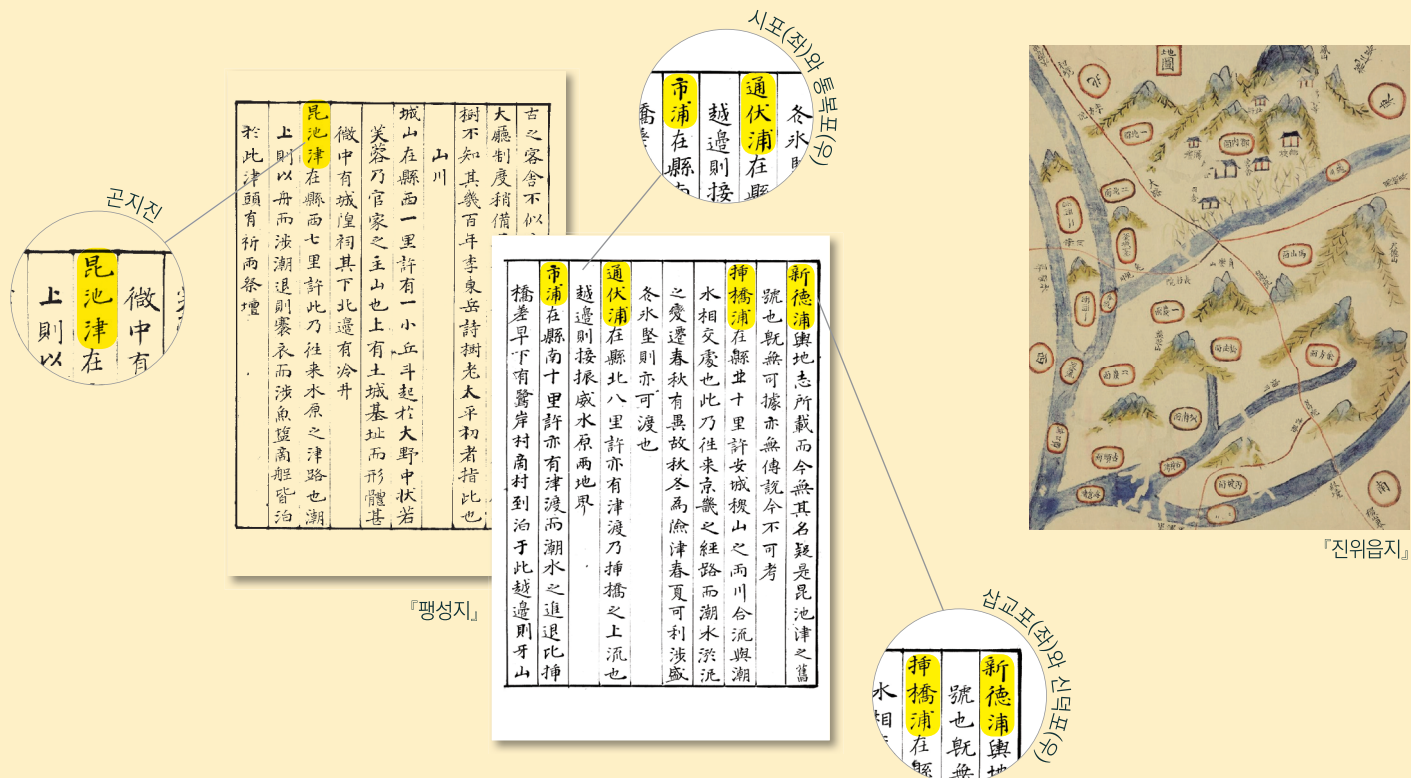


지방도 수원부(1872)

이 추가되었다. 향곶포는 지금의 안성시 양성면에서 화성시 향남면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으며, 서해안의 어물이 내륙으로 유통되는 관문역할을 하였다.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에는 계두진과 이포진 정도가 언급되는데, 계두진은 ‘아산으로 통한다’고 했고, 이포진은 ‘평택으로 통한다’라고 하여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였다는 점이 조선 전기의 승람에 비해 진일보한 서술이다.

16세기부터는 지방별로 각 도 단위 또는 군현별로 읍지가 편찬되었으나, 평택의 경우는 19세기의 문헌만 전해진다. 현재의 평택은 조선시대의 수원부, 평택현, 양성현, 진위현, 직산현이 겹치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다르게 간행되었다. 1899년 『수원부읍지』에는 이포진과 당진포가 실려 있고, 1831년 『화성지』에서는 당진포를 당포진으로 표기하였다. 현덕면 신왕1리에 있는 당포진은 남으로는 경양포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수원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대동여지도’에는 당시 중요 육로 교통을 이어주는 대진, 향곶포, 계두진 등과 더불어 주요 교통로에서 비껴난 노산포(노양2리)를 함께 표기하면서도 당포진은 길만 나타내고 포구명을 기입하지 않았다. 『수원부읍지』와는 대조적으로 1872년에 제작된 ‘수원부지도’에는 용포(청북읍 삼계1리), 대진, 신성포(팽성읍 노성1리), 신흥포(당포진, 광덕나루) 등이 있어 두 기록이 서로 겹치지 않아 다소 의아하다. ‘신성포’는 팽성읍 노성1리로 당시 수원부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 지도에 신흥포 아래로 신성포가 있는 점으로 보아 제작 당시 정확하게 실증(實證)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팽성지』는 다른 관찬(官撰) 읍지와 크게 비교가 될 정도로 팽택현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팽성읍 대추리의 오을미곶포가 곤지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삼교포(신대3동), 통북포(통북동), 시포(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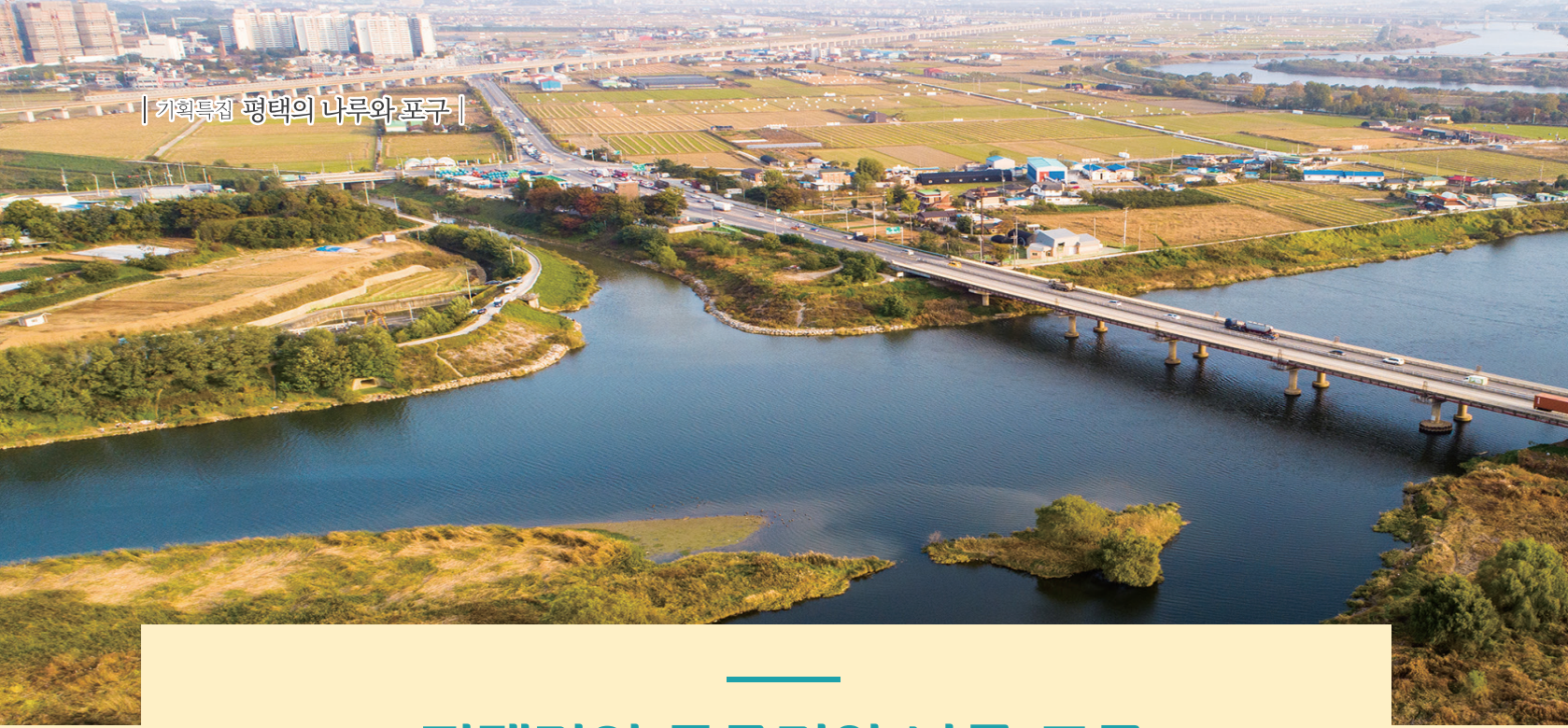


포면 시포리)가 등장하며 포구와 연결되는 교통로,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와 계절에 따른 물길의 변화 등 포구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다. 사찬 『팽성지』를 저본으로 삼은 1895년 『평택읍지』는 여기에 더하여 포구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1899년 『진위읍지』는 승람 이후 전형을 보인 편찬 체제에서 벗어나 '월포(越浦)라는 항목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띄며, 군문포(군물진), 황구포(항곶포), 해창포(고덕면 해창리), 고잔포에 대하여 그 위치와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승람에 비교하여 19세기 읍지에는 기록된 포구가 늘었으며, 승람에 비해 내륙 안쪽에 있는 포구들을 수록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상업과 유통의 발달로 조선 전기에 비해 사람과 물산의 이동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선세(船稅) 징수 등의 행정적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관청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

고문헌의 한계

조선 전기부터 각종 지리지가 편찬되었는데 더하여 조선 후기에는 읍지가 계속 엮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록에 나타난 포구는 전체적으로 15곳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는 평택지역의 포구들이 있는 지도가 대략 16종 정도인데, 여기에 표시된 포구와 나루도 청북읍 삼계1리의 용포 정도를 제외하고 지리지 및 읍지류에 나온 포구의 숫자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신성포'와 같은 오류도 발견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편찬된 『평택시사』, 『평택항 20년사』 같은 문헌이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평택 지역의 나루와 포구가 30여 곳이 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옛 기록이 조운 또는 교통로와 관계된 나루를 중심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보지만, 그 근거가 미약하다.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소사별**



평택지역 물줄기와 나무·포구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대동방여전도에 나타난 평택의 수계

평택지역 물줄기의 중·하류에 분포

평택지역은 물줄기가 매우 많다.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만 52개에 달한다. 중심하천은 남쪽으로는 안성천, 북쪽으로는 발안천이고 북동쪽에서 서남방향으로 진위천이 흐른다. 평택은 지대가 낮고 경기만의 조수(潮水)가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하천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배가 드나들었다. 배들이 드나드는 곳에는 나무·포구가 발달했다. 나무·포구는 수로교통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조운, 포구상업, 어업, 군항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안성천은 평택지역 물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천이다. 나무·포구는 평택시와 안성시의 경계인 공도읍 진사



궁안교 아래, 서정리천과
진위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었던 다라고비진



안성천, 군문교 일대에 있었던 군문포



황구지천과 진위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던 항곶포

리 부근까지 발달했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조에는 안성천의 주요포구로 현덕면 권관리의 계두진(鷄頭津)과 고덕면 방축1리의 이포진이 언급됐다. 또 직산현 조에는 팽성읍 노양1리의 경양포가 언급됐으며, 평택현 조에는 오을미곶포(吾乙未串浦), 시포(市浦), 신덕포(新德浦), 신증에는 군물진(軍勿津), 지진(池津)이 소개되었다. 조선전기의 나루·포구는 대체로 육로교통과 수로교통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했다. 안성천 수계의 나루·포구들도 삼남지방과 한양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진위천의 본래 이름은 장호천이다. 진위천은 1960년대만 해도 서탄면 회화리 부근까지 바닷물이 들어갔다. 하천을 건너는 뱃터는 오산시 경계인 진위면 갈곶리에도 있었지만 경기만의 어선(漁船)과 상선(商船)들은 서탄면 황구지리까지만 올라갔다. 문헌에 나타난 진위천 수계의 나

루·포구는 다라고비진, 해창진, 동청포, 토진, 항곶포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지리지(地理志)에 소개된 나루·포구는 고덕면 궁1리의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이 유일하다. 항곶포(진), 동청포, 해창진, 토진은 18~19세기 편찬된 읍지(邑誌)와 고지도에 소개됐는데 이것은 조선후기 교통 및 포구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덕면 해창 4리의 해창진은 진위현의 해창(海倉)이었다. 그래서 갑오개혁 전까지는 조창과 조운선이 정박하는 포구가 형성되었다.

발안천 수계에는 옹포를 비롯해서 자오포, 호구포, 신포, 고잔포와 같은 나루·포구가 있었다. 또 아산만 연안에는 대진(大津)과 신전포, 계두진이 있어 해로(海路) 교통과 어업의 중심역할을 했다. 청북읍 삼계1리 옹포(甕浦)는 양성현의 해창(海倉)이었으며 포구상업이 발달했다. 자오포와 호구포는 국영마장이 있었던 포승읍 흥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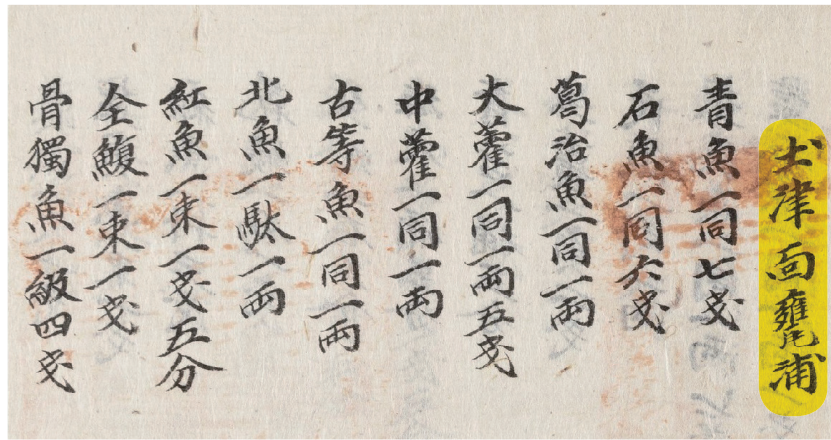
리에 있는 포구로 화성시 장안나루와 연결된 교통의 요지였으며 홍원마장의 소와 말들이 입출(入出)되는 창구였다. 신포(新浦)는 청북읍 현곡2리에 위치했고 고잔포는 청북읍 고잔리에 있었다. 대진(大津)은 포승읍 만호5리의 포구로 고대에는 당나라를 오가는 포구였다. 근대 이후에는 충청도 내포 지역과 연결된 교통의 요지였으며 아산만 연안어업의 중심이었다.

평택지역의 나루·포구는 근대 전후 큰 변화를 겪었다. 상류로부터 밀려 내려온 토사로 뱃길이 막히고 포락(浦落)에 의해 땅이 깎이면서 사라졌거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 이후에는 사람과 물자 유통이 철도와 근대교통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역할이 줄어들었고, 철도나 근대교통로와 가까운 군문동 군문포나 통북동 신태포, 화포, 신대동 고잔포, 삽교포, 고덕면 이포의 역할이 커졌다. 근대 이후의 교량 건설과 해방 전후의 간척, 1970년대 아산만, 남양방조제 준공 그리고 평택항 확장과 서해대교 건설은 나루·포구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현재 평택지역 수계에서 나루·포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없다.

조운(漕運)과 어업(漁業), 포구상업 발달

평택지역 나루·포구는 기능이 다양했다. 교통로 역할만 했던 나루도 있었지만 조운과 어업, 포구상업, 그리고 군사적 기능까지 담당했던 포구들도 있었다.

조운(漕運)은 고려와 조선시대 수운(水運)을 이용하여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는



『수원부각포선세혁파성책』

조창(漕倉)과 해창(海倉)이 설치되었는데, 평택지역에는 고려시대의 하양창, 조선시대에는 경양포, 해창진, 옹포에 해창(海倉)이 있었다. 하양창은 고려시대 평성읍 노양1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기능이 중단되었고, 조선건국 후 한양으로 천도하고 조운제도를 재편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경양포에는 직산현과 평택현의 세곡을 담당했던 경양창을 설치했다. 경양창이 있는 곳에는 아직도 ‘뱃터’라는 지명이 남았고, 2008년까지는 해운판관을 담당했던 직산현감의 시혜비가 세워져 있었다. 고덕면 해창4리 해창진은 진위현의 세곡을 수납하여 운반하는 해창이었다. 근래 해창4리가 폐동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 서쪽에는 ‘뱃터’라는 지명과 조운선의 뱃줄을 묶었다는 팽나무가 있었다. 청북읍 삼계1리 옹포는 양성현의 해창이었다. 19세기에는 신포에도 조창을 설치했는데 읍치(邑治)로부터 100여 리나 떨어진 지역이어서 세곡(稅穀) 운반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조선후기에는 포구상업이 크게 발달했다. 포구상업을 주도한 것은 경강상인(京江商人)들과 경기만의 어민(漁民)들이었다. 경강상인들은 조세(租稅)나 대동미(大同米)



현덕면 구진개 포구의 옛 모습(1957)

의 운반을 대행하면서 서남해안의 곡물과 어염을 수집하여 판매했다.

평택지역에는 해창(海倉)처럼 곡물이 집산되는 곳이나 육로와 수로교통이 교차하는 포구를 중심으로 포구상업이 발달했다. 대표적인 포구로는 평성읍 노양1리의 경양포와 노산포, 노성1리 신성포, 현덕면 신왕1리의 당포진, 포승읍 만호5리 대진, 청북읍 삼계1리 웅포, 진위천 수계의 다라고비진과 동청포, 신대동의 고잔포와 삽교포, 통북동 화포와 신덕포, 군문동의 군문포가 대표적이다.

조선후기 경양포는 직산현과 평택현의 해창(海倉)이어서 관리들이 상주했다. 그래서 상인들은 경양포 위쪽인 노양2리 노산포나 둔포에 상선(商船)을 정박하고 상업활

동을 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조운제가 폐지되자 노산포나 둔포로 올라가던 상선들이 경양포에 정박하면서 포구상업과 어업이 발달했다. 경양포의 포구상업은 1950, 60년대까지 명맥을 이었지만 한국전쟁 뒤 안정리 일대에 K-6캠프험프리즈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평택방면으로 연결된 육로교통이 끊기고 근대교통과 유통망에서도 멀어지면서 쇠퇴했다.

안성천 하류에 위치한 당포진(광덕나루)도 조선후기 포구상업이 발달했던 포구다. 19세기 말에 작성된 『수원부 선세혁파성책』에도 ‘청어, 조기, 미역, 소금과 미곡, 목화, 창호지, 우피, 담배를 비롯한 매우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주민들은 해방 전후까지만 해도 봄



만호포구(1971)

가을 고기잡이가 한창일 때는 뱃터에 포장마차 20~30대가 성업을 이뤘고 사당패들의 풍악소리와 그네뛰기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옹포(甕浦)는 조선전기부터 양성현의 해창(海倉)이었고 조선후기에는 포구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포구였다. 옹포에는 객주(客主)와 여각도 있었다. 19세기 말 포구와 선박, 어민들에게 징수하는 포세(浦稅), 선세(船稅), 어세(魚稅)는 왕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래서 양성현의 현감은 왕실 측근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종의 최측근이었던 이용익이 그런 인물이었다. 이용익은 1884년 경 양성현감에 임명되어 옹포의 조세를 충실히 징수했다. 그래서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청북읍 사무소 마당에 세워져 있다. 옹포에서 거래된 품목은 어염을 비롯한 해산물 외에도 내륙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물들이 망라되었다. 『수원부선세혁파성책』에도 ‘청어, 조기, 갈치, 고등어, 북어, 민어, 미역, 대합, 김과 같은 해산물과 함께 미곡, 소금, 소가죽, 백목과 같은 품목이 거래되었다’고 기록되었다.

고덕면 궁리의 다라고비진, 동청포, 신성포, 항곶포, 토진도 포구상업이 발달했던 포구다.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1938년 궁안교가 건설되기 전에는 돛배들이 서탄

면 황구지리 항곶포까지 올라가서 어염(漁鹽)이나 새우젓, 굴젓과 곡물을 교환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교량이 건설되자 돛을 꺾고 노를 저어 올라갔는데 대체로 1960년대까지는 이 같은 포구상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둔포천 수계의 신성포는 아산의 둔포와 마주보고 있어 일찍부터 포구상업이 발달했다. 포구로 드나들던 상선들은 소금배와 새우젓, 굴젓, 황석어젓, 뱀뎡이젓 배, 곡물이나 생선을 실은 배들이 들어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충청도로 건너가는 나루에 불과했던 군문포는 1905년 경부선 평택역이 개통되고 역전에 평택장이 발달하면서 포구상업이 크게 발달했다. 1920, 30년대만 해도 군문포에는 경기만의 어염 뿐 아니라 평택평야에서 생산된 곡물들이 들어왔다. 군문포로 들어온 상품들은 평택장의 싸전이나 젓도가, 소금상회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평택역을 통해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려 갔다. 평택역 인근의 통북동 신덕포, 화포, 신대동 고잔포, 삼교포도 근대 이후 포구상업이 발달했던 포구다. 특히 이들 포구는 1930년 평택교(군문교)가 건설되고 군문포의 기능이 쇠퇴한 뒤에도 경기만 어염이 평택장으로 들어오는 창구로 역할을 했다.

근대전후 안성천 하류와 발안천 하류, 아산만 연안에는 어항(漁港)이 발달했다. 어항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포



구들과 포승읍 만호5리 대진, 홍원3리 자오포, 신영리 신전포, 현덕면의 구진, 권관리의 석화진이 유명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기만 일원과 안성천, 발안천 하류는 숭어, 강다리, 대하, 꽃게, 뱀장어, 웅어, 준치 등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천혜의 어장이었다. 그래서 봄·가을 어업이 시작되면 평택지역의 어선 뿐 아니라 서남해안의 어선들까지 모여들어 어로활동을 했다. 교통이 불편하고 유통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 어선들이 잡아 온 생선은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었다. 일반적인 방식은 주변 마을의 농민들과 물물교환을 많이 했고 남는 것은 건조해서 팔았다. 몇몇 포구에서는 뱃터에 포장을 치고 생선회로 팔기도 했으며, 새우, 뱀뱀이, 황석어 같은 작은 생선은 젓을 담가 저장해뒀다가 팔았다.

아산만 연안에서는 제염(製鹽)과 맨손어업도 발달했다. 제염(製鹽)은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자염(煮鹽)을 구웠는데 주로 아산만 연안마을에서 많이 했다. 그러다가 1950년대 피난민정착사업으로 간척을 많이 하

면서 발안천 하류의 포승읍 홍원리, 내기5리, 도곡리, 고잔6리 일대에 천일염전이 조성되었다. 맨손어업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포승읍 멍거니 일대와 영웅바위 근처에서 굴을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1960, 70년대 갯벌생태계가 바뀌면서 바지락, 맛, 갯지렁이가 풍부하게 서식하자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평택항 확장공사가 본격화되는 2000년 전후까지 계속되었다.

평택지역의 나루·포구는 근대교통의 발달과 산업개발로 쇠락했다. 조운(漕運)은 갑오개혁 때 조세가 금납화(金納化)되면서 중단되었고, 수로교통의 중심역할을 했던 나루는 근대적 교량이 건설되면서 쇠퇴했다. 포구상업은 상품유통망이 육로(陸路)를 중심으로 바뀌면서 중단됐으며, 아산만 연안과 안성천, 발안천 하류의 어업은 1970년대 초 아산만방조제와 남양방조제 준공 그리고 1990년대 평택항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주둔으로 중단되었다. **소사벌**



출어를 위해 어망을 손질하는 어부(1971)



해양 교통의 요지, 평택

문헌에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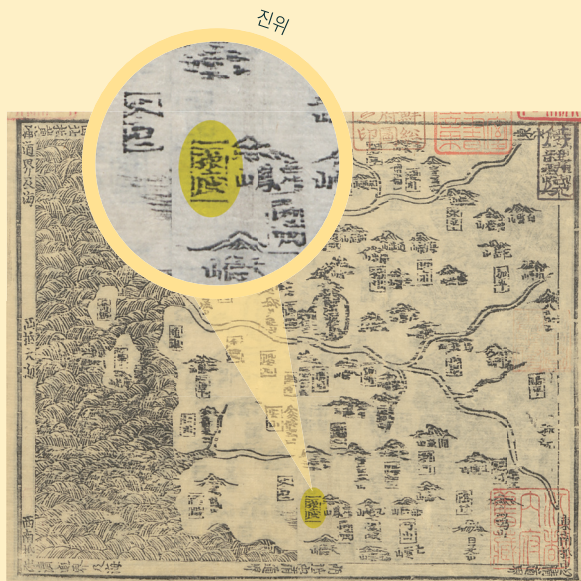
갑오개혁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쌀이나 콩, 그 외에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해안가 지역에는 조세로 거둔 곡물들을 보관해 두는 창고(조창)를 두고, 선박을 마련하여 수도로 옮겨오도록 하였는데, 이를 조운이라고 하였다. 조세는 보통 가을걷이가 끝난 11월 정도부터 거두기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에는 징수를 마치고, 2월에 운송을 시작하여 가까운 곳은 4월, 먼 곳은 5월까지 끝내도록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평택은 서쪽으로 바다에 닿아 있어 고려~조선시대에는 해양 교통의 요지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13개 조창 중의 하나인 하양창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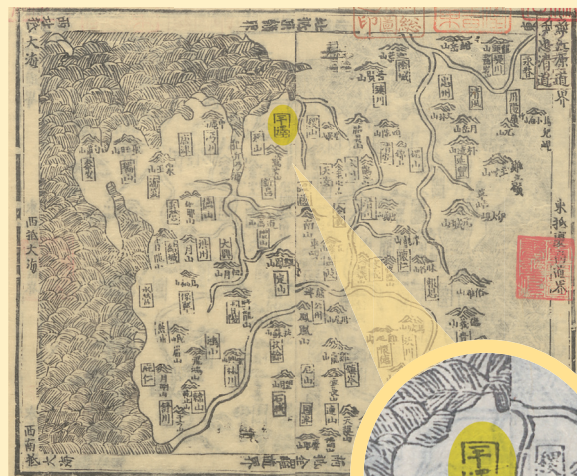
되었고, 여말 선초에는 경양창이 설치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해창이 설치되어 조세를 모아 운송하였다.

고려시대의 평택과 하양창

본래 하팔현(河八縣)이라 불렸던 평택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지역은 크게 평택과 진위, 하양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하양창이 자리 잡은 현재의 평택시 팽성읍 일대는 천안부의 속현인 직산현의 월경지였다. 월경지는 다른 지역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군현의 통치를 받는 지역을 일컫는 용어이다. 즉, 하양창은 평택현의 안에 있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稷山縣本慰禮城百濟始祖溫祚王開
國建都後高句麗取之改爲蛇山縣新
羅因之爲白城郡領縣高麗初更今名
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高麗改河陽縣
爲昌慶陽縣
蓋縣官
安城縣本高句麗柰兮忽新羅景德王
改爲白城郡高麗初更今名顯宗九年
屬水州後來屬明宗二年置監務恭愍
王十年紅賊入松都王南巡賊遣先鋒

『고려사』 「직산현」

편집포의 옛 이름은 타이포라고 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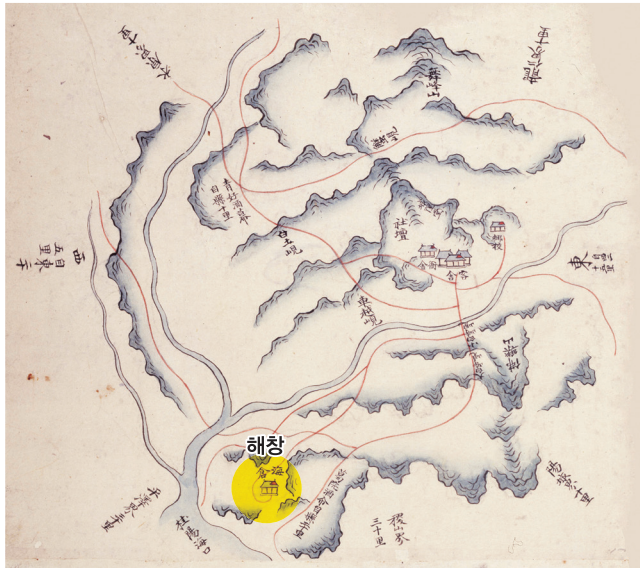
아주 하양창이 여기에 있다. 『고려사』

직산현은 본래 위례성으로, 백제 시조 온조왕이 개국하면서 도읍을 세웠다. …… 고려 현종 9년(1018)에 천안부에 속하게 하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고려에 와서 하양창을 경양현으로 고치고, 현령을 두어 염장관(鹽場官)을 겸임하게 하였다. 『고려사』

경양폐현(慶陽廢縣)은 고을 서쪽 44리에 있다. 본래 고려의 하양창인데, 뒤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

본조(조선) 태조 5년(1396)에 와서 직산에 예속시켰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동지도 속 진위현 해창(18세기 중반)

실제로는 직산현의 영역이었던 셈이다. 고려사 지리지에 남아있는 다음의 기록은 하양창 일대의 역사적 변천을 잘 보여준다.

위의 세 자료에 따르면 본래 하양창은 편섭포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다. 편섭포는 단순히 배가 닿은 포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이후 하양창은 몽골의 침입 등을 받아 기능을 잃고, 독립하여 경양현이 되었다가 조선 건국 이후에는 폐지되어 직산현의 직속 행정구역인 경양장(慶陽庄) 되었다. 장은 관청이나 군현에 속한 농장을 일컫는 말이다.

고려시대 하양창에는 1000석의 곡식을 운송할 수 있



하양창(경양창)의 위치로 추정되는 팽성읍 노양리

는 조운선 6척이 배치되어 있어 한 번에 6천석 이상이나 되는 곡식을 개경으로 실어 날랐다. 운송로는 망해산 아래에서 출발하여 아산만을 지나 서해로 나간뒤, 도리목 고개라는 곳에서 대난지도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영흥도와 대부도 또는 영흥도와 자월도 사이를 지나 북상하였다.

왜구의 침입으로 흔들린 고려의 조운제도

1350년부터 고려의 바다에 출몰하여 조운선과 해변 고을을 노략질하던 왜구는 1380년경에는 한꺼번에 수백 척의 선단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할 만큼 대규모화 되었

다. 이에 따라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조운제도는 고려 말에 이르러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하양창 역시 폐허가 되었다가 위화도 회군 이후 왜구의 침입이 다소 잠잠해지면서 다시 조창의 역할을 회복하였다. 조선초 경양창이 되었던 평택지역에도 하양창의 뒤를 이은 경양창이 설치되어 직산, 평택 일대의 조세를 운송하였다.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후 왜구의 위협이 점차 해소되면서 경양창이 담당했던 조운 업무는 좀 더 바닷가와 가까운 면천의 공세곶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아산의 공세곶창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하양창, 경양창 등으로 불렸던 평택 지역의 조창은 기능이 약화되었다.

하양창, 경양창의 위치는 대략 팽성읍 노양리와 본정리 일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유적은 물론, 지명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서산의 영풍창이나 영광의 부용창 등 같은 시기의 다른 조창들이 포구를 끼고 있는 산의 아랫자락에 자리 잡은 것을 보면, 하양창의 창고 시설은 망해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조운과 평택의 해창

왜구 침입이 끊기면서 모처럼 안정을 되찾은 조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선 정부는 조운선이 지나는 군사적 요충지에 만호를 두고, 수군을 거느리며 조운선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 일대에 대진 만호가 설치되어 당진포 만호와 함께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을 도왔다. 조운제도 역시 점차 체계화되면서 경국대전이 편찬될 무렵에는 9개의 조창에서 조운을 전담하는 체제로 자리를 잡았다.





해동지도 속
직산현 경양창과 안중창(18세기 중반)

조선지도 속
직산현 경양면과 경양창, 안중면과 안중창(18세기 후반)

지방도 속 진위현 해창과 해창포(1872)

그러나 국가에서 설치한 조창과 국가 소유의 선박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조선의 조운제도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의 국가체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개의 조창 역시 기능이 약화되고, 각 군현들은 스스로 조운선을 마련하여 조세를 운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해창이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고을들은 배가 드나들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해창을 설치하였고, 내륙의 군현들은 직접 배를 구하거나 경강상인들의 배를 빌려서 조세를 운송하였다. 해변 고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2~3개의 해창을 한꺼번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평택지역은 바닷가에 가깝고, 운송 또한 편리하여 여러 곳에 해창이 들어섰다. 평택현에는 읍창이

30칸 설치되었으며, 직산현의 월경지인 안중에 안중창(안중읍 대반 3리 창말), 경양면 지역에 경양창(평성읍 노양리), 진위면에 진위 해창(고덕면 해창리), 양성 해창(청북면 삼계리) 등이 설치되었다. 안중창은 창고 건물 8칸과 좌기청 4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양창은 창고 건물 13칸과 좌기청 6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조선시대 평택 지역의 조운로

안성창, 경양창, 진위해창 등 평택지역의 해창은 대체로 안성천과 진위천 주변에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유사한 루트를 거쳐 한양에 이르렀다. 평택에서 한양에 이르는 항로는 여지도서에 비교적 자세히 남아있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진위) 정월에 조세를 거두어 창고에 보관하다가 4월에 배에 갖춰 싣고 해창을 출발하여, 수원의 광덕포, 아산의 당포, 수원의 영웅대해, 남양의 도리대해, 인천의 팔미대해, 영종도와 손돌항, 강화, 통진, 김포, 고양 행주, 양천포를 거쳐 20일이면 한강의 군자감에 상납한다.

『여지도서』 진위현 전세

『여지도서』의 기록대로라면 평택지역에서 출발한 조운선은 안성천을 따라 큰 바다로 나간 후 영종도와 손돌목을 지나 한강변에 있었던 군자감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광덕포, 노산포, 경양포, 용포 등 평택 지역의 해창이 자리잡은 포구들이 대략 비슷한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 기간이 최고 20일에서 최저 5일까지 각기 달랐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진위가 20일로 가장 길었고, 양성이 5일로 가장 짧았다. 경양포에서 한양까지는 1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양성은 순풍을 만났을 때, 진위는 가장 오래 걸렸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같기도 하지만 보름이나 차이 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조창 사람들의 삶

조창이 있었던 지역을 흔히 창말이라고 한다. 창말이란 지명은 지금도 여러 곳에 남아있다. 해창이 있었던 지역은 해창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이들 조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무척이나 고달팠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를 징수할 때 양을 계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둑을 막는 일, 조세를 배에 싣고 내리는 일, 조운선을 운항하는 일 등 온갖 일들에 다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조창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과 실무를 담당하

람, 그리고 조세의 선적을 담당하

는 사람, 사공과 노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판관이 라는 책임자와 색리라는 실무행정 담당자가 있어 조창과 관련된 일을 모두 처리하였다. 배의 운송 책임자는 사공, 노를 젓는 사람들은 격군이라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조운 시기에 맞춰 조창에 파견되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해운판관이라고 했다. 조창 실무를 담당하

나가면서

바닷가의 교통이 발달한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평택 역시 바다와 함께 크게 번성했다가 해상 교통이 힘을 잃으면서 그 역할이 줄어든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21세기는 다시 해양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주변의 중국, 일본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의 세기를 맞아 평택지역이 전근대시기에 해양 교통과 조운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양창, 경양창 등은 물론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해창 등 해양관련 유적들을 정비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평택이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역사·문화의식도 함께 성장하는 저력있는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소사별**

빛바랜 사진이야기 / 평택사람들의 물놀이



구진개 청년들의 뱃놀이 1933년 / 평택시 현덕면

평택(平澤)은 지명으로도 알 수 있듯 ‘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 황구지천, 오산천 등 4대 하천을 비롯해 많은 지천이 도시 곳곳을 휘감아 흘러 고덕면과 팽성읍, 오성면 두물머리에서 진위천과 안성천이 만나 경기만 서해바다로 흐른다. 하천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1974년 국가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서 시작해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이르는 평택호방조제가 건설된 후 해수면과 내수면의 경계가 명확해졌지만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팽성읍 두물머리에서 굽이돌아 현덕면을 거쳐 서해바다로 흐르는 물줄기를 ‘광덕강(廣德江)’이라고 불렀다. 평택 현덕면과 아산 인주면을 잇는 큰 물막이 공사 이전에는 신왕나루와 구진나루에서 멀리 강화와 옹진으로까지 고기잡이를 떠나곤 했다.

사진은 1933년 현덕면 대안리 구진나루 앞바다에서 이 마을 청년들이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숭어와 장어, 꽃게 등이 많이 잡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이 많아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지역이었다. 반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물가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즐기는 친구들의 표정이 매우 밝다.



대천해수욕장에서 즐거운 한때 1967년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평택은 포승읍과 현덕면이 서해바다에 접해 있지만 백사장이 없고 대부분이 갯벌이어서 해수욕을 하기에는 지형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간조 때 포승읍 만호리 대진에서 배를 타고 나가 영웅바위에서 굴을 따거나 마을사람들이 단체로 행담도에 가서 하루를 즐기다 돌아오는 것으로 물놀이를 대신했다.

1970년대 들어서서는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충청남도 태안과 보령 일원의 학암포, 천리포, 만리포, 몽산포, 꽃지, 대천으로 여름 해수욕을 즐기러 가곤했다. 친구들과 떠나면 보통 2박 3일 또는 일주일가량을 무전여행으로 머물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해 바다로 떠나는 여름철 해수욕장 캠핑에서는 다양한 추억들이 쌓이게 된다. 묵직한 텐트와 식기, 통기타와 카세트 플레이어는 기본이고, 심지어 이불과 쌀까지 챙기다 보면 해수욕장행 기차 안은 피난 열차와 다를 바가 없었다.

선크림이 없었던 그 시절, 여름 해수욕을 다녀온 후에는 몇 번의 허물이 벗겨지는 아픔이 선물처럼 따라오기도 했다.



평택사람들의 소양호 야유회 1974년 / 강원도 춘천시 소양호

50~60년 전까지만 해도 계절별로 꼭 즐겨야 하는 놀이문화가 있었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우리네 놀이문화로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뱃놀이’, 가을에는 ‘단풍구경’이 그것이다.

봄 꽃놀이는 못자리와 모내기 사이에 잠시 틈을 내서 다녀오는 한해 놀이문화의 시작이었다. 마을별로 관광버스를 빌려 경상남도 진해와 경상북도 경주, 서울 여의도와 석촌호수 등 벚꽃 명소를 찾았는데 이때 전국에서 몰려든 꽃놀이 인파로 벚꽃 명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 해 농사에서 가장 바쁜 때가 모내기와 벼 베기 철이지만 모내기가 끝나면 마을별로 강이나 호수로 뱃놀이를 떠날 채비를 했다. 평택에서는 수원 서호나 원천유원지, 춘천 소양호, 단양 도담삼봉을 주요 뱃놀이 장소로 다녀오곤 했다.

사진에 나오는 배는 10여 명 남짓 탈 수 있는 작은 배지만 댐이나 호수를 운항하는 유람선은 대부분 30~50명가량 탑승이 가능해 관광버스로 놀이를 온 한 마을 주민들이 모두 탑승할 수 있는 규모였다.



안성천 이포 물놀이 1976년 /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1974년 평택호방조제 준공 이전만 해도 평택시 남부지역에는 평택과 안성 경계지역인 안성천 유천동 상류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평택시 북부지역은 평택과 용인 경계지역인 진위천 은산리, 진위면 야막리와 갈곶리 오산천 경계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이 때문에 하천 제방은 홍수 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포락(浦落)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천의 물 높이도 만조와 간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滿潮)에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기 어려웠지만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간조(干潮)에는 진위천과 안성천에서 물놀이를 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

사진은 안성천 물줄기가 휘돌아 내려가는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이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이를 지켜보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한여름의 여유로움을 엿볼 수 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가릴 것 없이 벌거벗고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소사벌**

글 · 사진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Memory in Pyeongtaek 대표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홍보물로 본 1990년대 문화행사 —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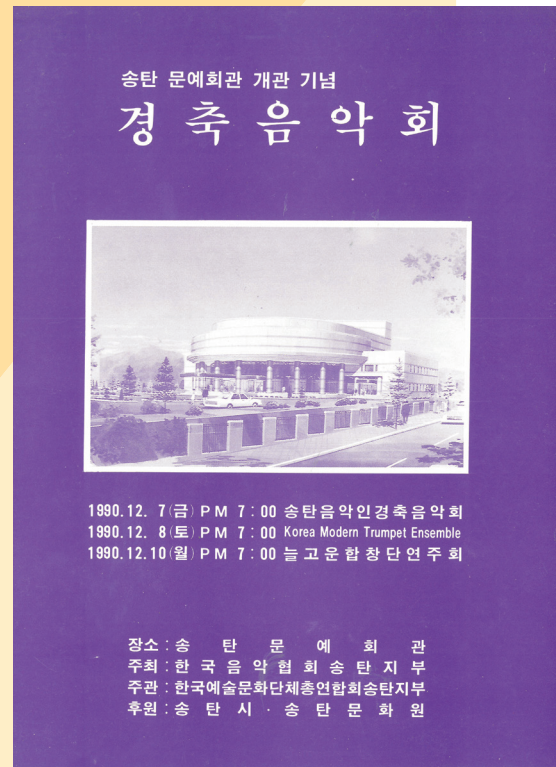
1980년대 이전 문화예술 공연과 발표의 장으로 활용되던 문화기반시설은 평택읍사무소 옆 복지관과 평택문화원 전시실, 비전리 평택우체국 강당 정도였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창달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지자 평택군·송탄시·평택시는 각각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했다. 1990년 송탄시문화예술회관, 1991년 평택군문화예술회관, 1993년 평택시문화예술회관이 준공하는 등 각 시·군은 앞 다투어 문예회관을

을 건설하였고 이러한 문예회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치러지며 시민의 문화예술 증진에 힘썼다. 3개 시·군으로 운영돼온 3개의 문화예술회관은 1995년 5월 10일 통합 평택시가 총괄 운영·관리하게 되고 명칭도 송탄문화예술회관·안중문화예술회관·평택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북부문화예술회관·서부문화예술회관·남부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각종 홍보물로 당시의 평택 문화예술활동을 반추해 본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송탄시지부 창립전 'α'

한국미술협회 송탄시지부 창립전 'α'의 팸플렛으로 이 전시는 송탄관광호텔 7층 제1전시실에서 199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하였다. 24명의 회원이 유화, 판화,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송탄 문예회관 개관 기념 경축음악회

송탄문예회관 개관기념 경축음악회 팸플렛으로 이 음악회는 송탄문예회관에서 12월 7일에는 송탄음악인경축음악회, 12월 8일에는 Korea Modern Trumpet Ensemble, 12월 10일에는 늘고운합창단연주회가 공연을 가졌다.

평택문화예술회관개관기념

피어선

Concert Choir 연주회

W. A. Mozart Coronation Mass
영화음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지휘: 고영필 교수
반주: 김선희·김진영

일시: 1993. 11. 11 (木) P.M 7:00
장소: 평택 문화예술회관
주최: 피어선 콘서트 콰이어
후원: 평택시, 한국음악협회 평택지부
피어선 대학교 총학생회, 피어선 대학교 음악학회

피어선 콘서트 콰이어 연주회

평택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피어선 Concert Choir 연주회의 팸플릿으로 이 연주회는 평택문화예술회관에서 1993년 11월 11일 개최하였다. 제1부는 대관식미사, 제2부는 클래식, 제3부는 대중가요로 구성하였다.

제6회 마로음악회

에바다농아원
성육보육원
요한의 집
베네딕도 수녀원 요셉의집
돕기 무료공연

첫째날(10월30일)
국립국악원 초청
국악의 밤

원 박 최충훈 ●중소무용문화재단 제1회 ●중소지역의 문화의 후보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장 음악감독	최동우(백현인사) 이훈구 ●중소무용문화재단 제1회 ●전, 백현인사 보육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장 지도자	가야금산조 강경숙 ●중소무용문화재단 제1회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육 후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장 지도자	장 구 장덕희 ●중소무용문화재단 제1회 ●중소지역의 문화의 후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장 지도자
대금산조 원경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장 지도자	연창가곡 조익희 ●중소무용문화재단 제1회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장 지도자	추경자 복아경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장 지도자	

둘째날(10월31일)
Baritone Hans Choi Recital
바리톤 최현수 독창회
(자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

특별출연

스프링스(에이) 베
최동우(백현인사) 이훈구
최동우(백현인사) 이훈구

바리톤/최현수
이태리 베르디 국제 콩쿠르 우승과 최고 바리톤상 수상(1990), 나치(독일) 수상(1991), 대한민국 문화훈장수상(1995),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의안니스(에이) 베
최동우(백현인사) 이훈구
최동우(백현인사) 이훈구

제6회 마로음악회

제6회 마로음악회 팸플릿으로 이 음악회는 송탄문화회관에서 1995년 10월 30일, 31일에 개최하였다. 에바다농아원, 성육보육원, 요한의집, 베네딕도수녀원, 요셉의집 돕기 무료공연으로 30일에는 국립국악원 초청 국악의 밤, 31일에는 바리톤 최현수 독창회를 공연하였다.



록 뮤지컬 가스펠

록 뮤지컬 가스펠의 포스터로 이 공연은 서부(안중)문예회관에서 1998년 9월 24일 개최하였다. 농어촌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관광부와 한국마사회에서 후원하였다.

평·택·시·민·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제2회 시민의 날 기념

봄 음악회

5월 6일 (화) 평택문예회관 오후7시 30분	5월 12일 (월) 송탄문예회관(소공연장) 오후7시 30분	5월 15일 (목) 안중문예회관 오후7시 30분
--	---	---

출연	
평택시민합창단(지휘 강상규)	
특별출연	
배너 김진원 바리톤 이재환	소프라노 황혜숙 소프라노 문은희

-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청하시는 분께 지정좌석표를 우송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50-5225, 50-5226 (행사 5일전까지 제부함-디)

평택시

제2회 시민의 날 기념 봄 음악회

평택시민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제2회 시민의 날 기념 봄 음악회'의 팸플릿으로 이 음악회는 5월 6일에는 평택문예회관, 5월 12일에는 송탄문예회관, 5월 15일에는 안중문예회관으로 순회공연을 하였다. 특별 출연 공연을 비롯하여 영화음악 모음곡, 합창곡, 대중가요 등을 공연하였다. **소사별**

평택을 품은 이야기

정경부인능성구씨, 너의 이름은

강하늘 평택문화원 학예사

진위면 봉남리 진위향교 앞에는 18기의 비가 웅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대다수 비가 관찰사와 현령의 공덕을 기리는 선정비인 가운데 ‘정경부인능성구씨송덕비’가 눈에 띕니다. 정경부인능성구씨의 이름은 ‘구택희(具澤熙)’로 대한제국시기 정부의 개화 정책을 이끌던 심순택의 부인입니다. 구택희는 남편과 함께 진위로 오면서 그녀에게 평택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됩니다. 구택희가 평택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보면 우리 고장의 인물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청령공 심순택과 부부의 연을 맺다

구택희는 명문가인 능성구씨 집안으로 심순택의 부인이 죽자 후처(後妻)로 심순택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심순택이 대한제국 말 우의정, 영의정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구택희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 정1품인 '정경부인'의 봉작을 받게 됩니다.

한양에서 생활하던 심순택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가솔들을 이끌고 진위면 봉남리로 향했습니다. 그가 진위로 낙향한 이유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일찍 죽은 손자의 위패가 '만기사'에 봉안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설을 비롯하여 그의 토지가 진위를 비롯해 경기·충청도 일대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순택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극형에 처하고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06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봉남리 자택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심순택의 사후 구택희는 진위와 서울을 오가는 생활하였습니다.

곳간을 열어 널리 은혜를 베푼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안주인은 관직에 나가 있는 남편을 대신하여 집안의 경제, 대소사 등 안살림을 책임졌습니다. 명문가의 안주인이었던 구택희 또한 집안의 대소사를 비롯하여 경기도, 충청도의 토지와 노비들을 관할하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난한 이웃을 살폈고 흉년이 들면 집안의 곳간을 열어 진위의 빈민구제에도 힘썼습니다. 이뿐 아니라 1925년 진위공립보통학교(현 진위초등학교)를 증축할 때는 오백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하여 주위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1930년대)가 13원인 걸 고려하면 오백원이 매우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령공심순택묘 ▲
청령공심순택신도비 ▶

계배(繼配)는 정경부인 능성구씨로 태화의 딸이며 딸 하나를 낳았다. 모두 부도(婦道)를 갖추었으나 공은 유덕(遺德)이 없었다.

- 청령공심순택신도비문 中 -

- * 계배(繼配) : 죽은 후처를 부르는 높임말
- * 부도(婦道) : 여성이 익히고 따라야 할 도리나 덕목



배움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을 열다

구택희는 진위면 봉남리에 ‘구씨학원’을 설립하여 가난하지만 배움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무료로 근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택희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던 구씨학원은 그녀가 연로해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1930년 서울과 일본에서 공부한 증손자 심재후가 그녀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를 신축하고 운영기금을 마련하여 다시 개교 했습니다. 2년제였던 구씨학원이 4년제로 전환하면서 교명은 금릉학원이 되었습니다. 금릉학원은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다가 해방 이후에 가곡리의 안동권씨 가문에 인수되어 진위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송덕비가 있는 진위향교 앞 선정비군

송덕비는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누군가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세운 비입니다. ‘정경부인능성구씨송덕비’는 진위면민이 정경부인 능성구씨인 구택희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송덕비 내용에는 진위면민을 두루 돕던 그녀의 삶과 따뜻한 심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경부인능성구씨송덕비문

정경부인 능성구씨는 영의정 심순택의 부인이다. 부군이 타계하여 그의 묘를 진위군 봉남리의 북쪽에 쓰고 갑인년(1914) 봄에 묘소 아래 정사(精舍)를 짓고 살기 시작하였다. 그 부인의 인자하고 후덕하며 자애롭고 선한 마음을 그 누가 우러르고 찬양치 않으리오. 친척이나 이웃 중에 가난하여 음식을 못 먹는 자와 의탁할 곳이 없고 집이 없는 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는 모두 그 부지런함을 막론하고 간절하게 두루두루 시혜를 베풀었다. 학교(黌舍)를 세워 교사를 초빙하고 돈을 내어 다리를 놓으며 도로를 보수하였다. 그리고 자기 소유 토지의 소작인 조합을 만들어 그들의 근면하고 게으름을 평가하여 시상하였다. 매년 봄에는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어 이웃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음력 12월에는 극빈자를 택하여 쌀과 반찬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어찌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만구동성으로 이 사실을 돌에 새겨 ○○○○ 대감마님(閨閣)께서 가난한 집(蔀屋)에 곡식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 주었으니(濟困扶危),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신 활불(活佛)이요, 만인(萬戶)의 길한 별(福德星)이시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 기념하여 돌에 새기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는 바이다.



기미년(1919) 8월 ○○일 **소사별**



평택이 |가 대신 탐방하드립니다

한국근현대음악관

한국근현대음악관 개관기념 도록 발책

2020년 10월 200평 규모의 한국근현대음악관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한국근현대음악관은 우리고장의 인물인 지영희 명인의 유산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근현대 음악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음악관은 저명한 음악인들이 기증한 근현대음악 자료 외에도 고음악, 고문서, 사진, 엽서 등 7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음악관은 전시실 외에도 도서관, 공연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방역 지침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임시휴관 중인 한국근현대음악관에 시민을 대신하여 평택이가 음악관 구석구석을 탐방하였다.



◀ 신호나팔을 부는 모습



신호나팔을 부는 평택이



근화창가와 평택이



일제강점기 금지된 노래책 「근화창가」

조선에 움튼 근현대음악의 씨앗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 안팎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근현대음악은 ‘자각’과 ‘수용’이라는 모습으로 조선에 움트기 시작한다. 봉건사회의 억압과 모순에 못 이긴 농민들은 항쟁을 벌였는데, 여기에는 음악과 노래가 함께 하였다. 동학가사와 두레 풍물은 낡은 질서의 모순과 문 제점을 깨닫게 하고 항쟁의 신호를 알리는 ‘자각’의 상징이다.

한편, 바깥으로부터 서양문화가 유입되었는데, 그 핵심은 기독교와 서양식 군대 제도였다. 선교사가 기독교와 함께 들여온 찬송가와 풍금, 서양식 군대의 신호나팔은 바깥에서의 근대 음악을 받아들인 ‘수용’의 상징이다.

민족음악 교육의 모색

1910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제에게 빼앗기면서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조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지키려 노력했다. 이왕직 아악부에서는 1919년 아악생 모집을 시작하여 근대적 교육으로 궁중음악의 맥을 잇고자 하였고, 평양 기생학교에서는 전통예술을 교육하여 여성 전문예술인을 육성하였다. 사립학교에서는 일제에 대응하여 우리의 민족적 정서를 지닌 창가집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1916년 편찬한 양금악보인 조선음률보를 든 평택이

평택 예인 7명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기획전 '평택 예인, 한국근현대음악을 이끌다' (2020.10.1.~2021.3.31.)

임금부터 백성까지 사랑했던 판소리 중고제 명창 '이동백', 경기 시나위 동령제의 창시자 '방용현', 국악 근대화의 아버지 '지영희'와 '성금연', 두레농악의 예술화를 이끌어 낸 평택농악의 명인 '최은창', 평택인의 삶을 그린 평택민요의 명인 '이종구', 한국적 음유시인 '정태춘'까지, 약 200여 년의 한국 근현대음악사 중심에 평택의

“

평택은 한국 근현대 음악사에서
중요한 예인들을 배출한
한국 음악의 산실이다

”



지영희 양금을 연주하는 평택이

양금

양금은 서양에서 전해온 현악기라는 뜻으로 18세기에 유럽에서 청나라를 통해 들어와 조선에 정착하였다. 양금은 대나무채로 깎아 만든 가는 채로 줄을 쳐서 맑은 금속성의 소리를 내며 주로 민간의 정악(正樂)연주에 사용되었다.

예술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예맥은 판소리·시나위·산조·농악·민요 등 한국 전통예술에 흐르고 있고, 대중음악으로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한국 음악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영희와 양금

이 양금은 (故)지영희 명인의 장남인 지재현 씨가 소중히 간직했던 아버지의 유품으로 한국근현대음악관의 탄생을 축하하며 평택시에 기증하였다. 지영희는 이 악기와 함께 1972년 미국 카네기홀에서 한국인 최초로 국악 공연을 펼쳤을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쳤다.

정태춘과 하모니카

포크 뮤지션 정태춘의 하모니카로 그의 대표작 <시인의 마을>의 간주 부분에서 사용 되었다. 정태춘은 한국과 한국 사회를 담아내고, 그 속에서 인간과 삶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였다.

시인의 마을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처럼
하늘에 비낀 노을 바라보며
시인의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 들을테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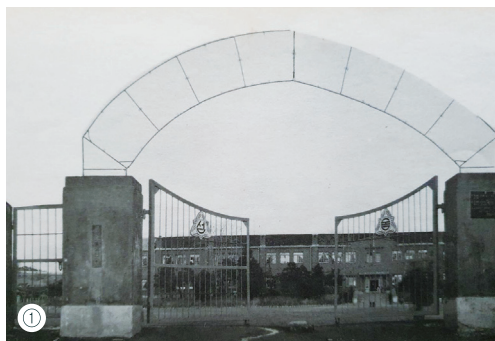
포크 뮤지션 정태춘의 하모니카



한국근현대음악관 3층 소리홀에서 바라본 평택호

음악은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민족의 얼과 혼이라고 한다.

어렵고 불운했던 지난날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음악과 역사가
한국근현대음악관에 녹아있다. **소사벌**



평택성동국민학교(1967) ① 교문 ② 본관 ③ 별관
©사진작가 허동



우리의 미래! 평택성동에게 묻다

평택성동초등학교



평택성동초등학교의 시작

1904년 충청남도 평택현 읍내리(현 팽성읍 남산리)에 거주하던 강난수(姜蘭秀)가 사랑방을 개량 서당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택성동초등학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공식개교는 1913년으로 공립보통학교 중심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따라 '평택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평택군 읍내면 객사리(현 팽성읍 객사리)에 있던 평택공립보통학교는 평택역 부근에도 공립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10년대 중반 통복동 평택세무서 일대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평택역의 성장과 함께 평택공립보통학교의 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하자 학교증축기성회가 조직되어 학교 증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성동(城東)’이라는 교명과 함께

학부모와 지역유지의 기부로 학교 증축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었지만 좁은 학교 부지로 인해 증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지와 이전을 고민한 끝에 평택읍 비전리(현 비전동) 일대로 1938년 자리를 옮겨왔다. 당시로써는 드물게 붉은 벽돌로 된 최신식 건물로 20개교의 교실을 신축하였다.

같은 해인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평택공립 보통학교의 교명도 '성동심상소학교'로 변경되었다. '성동(城東)'이라는 교명은 당시 학교의 위치가 군청이 있었던 원평동의 동쪽에 위치하여 붙여졌다.

1960년대 말로 들어서자 평택성동국민학교 하나로 더 이상 초등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69년 평택 국민학교, 1982년 평일국민학교, 1988년 비전국민학교,



정책보교에 서광(조선일보 1936년 3월 28일) | 입학지원자가 매년 정원의 삼 배식 초과되어 입학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탄식하는 아동의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당시 유지세와 학부형측에서 이 문제를 거듭 토의한 결과 현재교사의 배를 신축 증급하기로 결의하자 누구나 열렬한 열성으로 자진 기부자가 속출하면서 일만이천 여원의 거액에 달아올랐다.

1992년 합정국민학교를 각각 개교해 운영하였다. 평택성
동초등학교의 학급수가 가장 많을 때는 80학급 정도로
전체 학생 수는 4,8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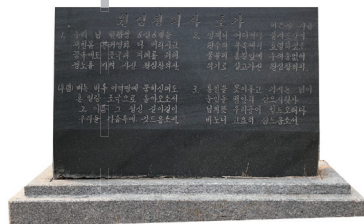


원심창 의사 동상

원심창 의사 조가(弔歌)

노산 이은상 지음

1. 우리님 한평생 66년을 제한몸 부귀영화 다 버리고
꿈속에도 조국과 겨레를 위해 정도를 지켜사신 원심창 의사
 2. 언제나 어디서나 불사조같이 원수의 옥속에서 호령하셨소
물불과 총칼앞에 두려움없이 의기로 살고가신 원심창의사
 3. 통일을 못이루고 가시는 님이 눈인들 편안히 잠으시릿가
님의 뜻 우리들이 받드오리다 비노니 고요히 잠드옵소서
- (후렴) 뼈는 비록 이역땅에 묻히신대도 혼일랑 조국으로 돌아오소서
그 이름 그 정신 길이길이 우리들 가슴속에 깃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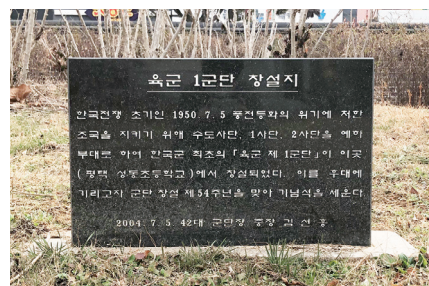
원심창 의사 조가



평택성동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박남규 선생님상

평택성동초등학교에서 마주하는 역사의 흔적들

평택성동초등학교의 동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름답게 조성된
학교 숲을 마주하게 된다. 아름다
운 학교 숲 사이를 따라 걷다 보
면 역사의 흔적들과 마주칠 수 있
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은



육군 1군단 창설지 기념 표식

육군 1군단 창설 기념석이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 7. 5 풍전등화의 위기
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수도사단, 1사단, 2사단을 예하부대로 하여 한
국군 최초의 '육군 제1군단'이 이곳에서 창설되었다. 이를 후대에 기리고자
군단 창설 제54주년을 맞아 기념석을 세운 것이다.

기념석을 지나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면 인물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인
물상은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인물상이다. 원심
창 의사는 우리 고장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서 태어나 일생을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반공산주의자, 반독재 통일운동가로 헌신한 독립운동가이다.



평택성동초등학교

1991년 원심창 의사가 졸업한 초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평택성동초등학교 교정에 원심창 의사상을 건립하였다. 원심창 의사의 동상은 마치 평택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처럼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평택성동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석상, 신사임당상과 평택성동초등학교 초대교장인 박남규 선생님상을 찾아볼 수 있다.

평택의 미래를 묻거든 평택성동에게 물어라!

학교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마주하게 되는 평택성동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석상에 쓰인 문구이다. 평택성동초등학교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더 먼 역사를 쓰기위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여 참여와 소통이 기반이 되는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다양한 성장을 돕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상호문화이해의 역량을 갖춘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평택의 모습에 어울리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소사별**



평택성동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석상

평택호방조제와 배수갑문 |

평택호와 바다를 나누고 잇는 평택호방조제와 배수갑문,
왼쪽 권관항 포구와 그 위로 멀리 평택호예술관과 평택호를
가로질러 건설 중인 홍성~송산 간 서해선 전철 교각이 보인다.



평택은 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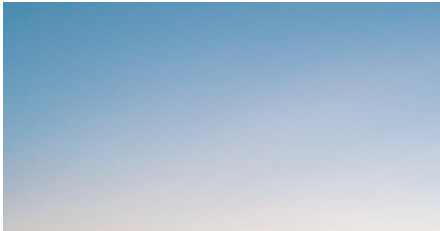
건 · 너 · 간 · 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황구지 세월교 |

진위천과 황구지천이 만나는 곳에
서탄면 금각리와 마두리를 잇는
황구지 세월교가 있다.



군문교 |

안성천을 건너가는 군문교,
오른쪽이 원평동이고 왼쪽은
팽성읍 신궁리이다. 국민동요
노율이 탄생한 곳으로 사계절이
여울지는 노율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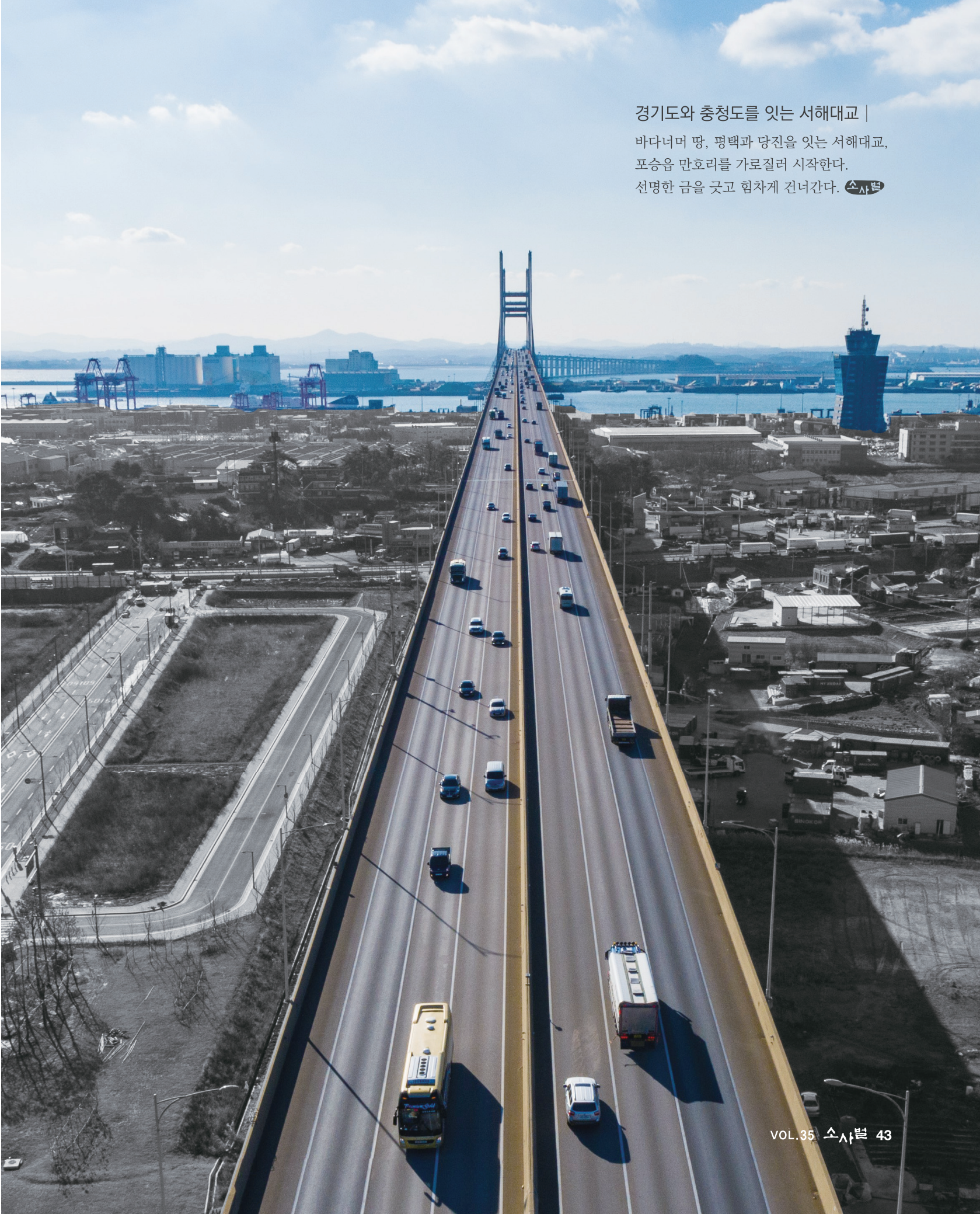


진위 세월교 | 진위면 봉남리와 마산리, 은산리를 이어주는 세월교이다. 물도 시간도 건너가고 넘어온다.

경기도와 충청도를 잇는 서해대교 |

바다너머 땅, 평택과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
포승을 만호리를 가로질러 시작한다.

선명한 금을 굶고 힘차게 건너간다. **소사벌**





평택종합고등학교 관악부(1969)



제1회 평택시합창제(1991)

평택시 합창의 역사를 읽다

글 · 임 봄 평택학연구소 연구위원
사진 · 평택예총 30년사 편찬위원회



학생음악회(1992)

평택지역에서 가장 먼저 음악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 것은 사립학교인 한광고등학교였다. 한광고등학교 홍성걸 교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김종숙, 이창녕, 임미애 등 우수한 음악교사를 확보하고, 최신의 고급악기를 구비했으며, 50인조의 밴드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이러한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광고등학교는 합창부, 밴드부, 바이올린부 등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었다. 그중에서도 합창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했는데,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은 학교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가대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한광학원에서 태동한 '합창단'

평택지역 합창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합창부와 성가대를 이끌어 큰 성과를 거둔 한광여자고등학교 김종숙 선생이다. 전쟁세대인 김종숙 선생은 24세에 지금의 세종대 전신인 수도여자사범대학 성악과에 입학해 본격적인 음악 인생을 시작했다. 1966년 목사인 남편과 함께 평택으로 내려온 이후부터는 한광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교회와 지역사회에서도 합창단을 이끌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김종숙 선생은 2015년 당시 <평택시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광학교에 부임한 초창기, 내게 가장 큰 사명감은 풀이 죽어 있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김종숙 선생은 교내 합창부를 시작으로 점차 지역사회에 합창단을 만들었고, 이들 합창단은 각종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부임 초기 한광여중 합창단과 한광여고합창부는 경기도와 전국 규모의 학생 합창콩쿨대회에 나가 1등을 차지해 평택군 전체를 들쭉이게 했는데, 당시만 해도 평택에서는 그런 대회에



제3회 한광학원 합창발표회(1973)

나가 상을 받은 일이 전무했다.

단비합창단에서 어머니·어린이 합창단까지

김종숙 선생은 1974년 영양실조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면서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어머니합창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어머니합창단’을 이끌고 경기도 콩쿨대회에 나가 33개 팀 중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6년에는 평택지역 교회 성가대원 중 16명을 선발해 ‘단비중창단’을 창단해 정기연주회와 교회 순회연주를 잇달아 개최했으며 1979년에는 규모를 확대해 ‘단비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교직원과 졸업생 50여 명으로 구성된 ‘단비음악단’도 있었는데 ‘단비’라는 이름에는 성령의 단비를 맞는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단비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송년음악회, 가곡의 밤 등 평택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음악행사 무대에서 멋진 하모니를 선보였으며 ‘KBS 토요 큰마당’에도 출연했을 만큼 탄탄한 실력을 입증했다. 사회정화운동 경기도지부가 주최하는 대회 은상 수상, 88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합창경연대회 동상, 1990년에 열린 ‘제



한광여자고등학교 김종숙 교사



평택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2012)

22회 난파음악제'에서는 당당히 대상을 거머쥔 만큼 전국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에는 평택과 송탄지역에서도 각각 예총 창립을 준비하면서 음악협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평택에서는 1990년 6월 28일 김종숙 선생을 중심으로 평택여성합창단의 전신인 '평택어머니합창단'이 창단했고,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평택소년소녀합창단의 전신인 '어린이합창단'이 창단했다. 이들 두 개의 합창단은 평택예총이 생기면서 음악협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평택어머니합창단'은 순수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주부합창단으로 초대 단장은 홍종례, 초대 지휘는 임정례, 제2대 지휘는 김종숙 선생이 맡았다. 초창기에는 정관이나 기타 제약을 위한 규율 없이 지휘자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단체가 운영됐으며 어머니의 모임 특유의 편안함 속에서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평택어머니합창단은 1993년 11월 27일 평택시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어머니합창단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삼성전국여성합창대회, 난파음악제, 난파합창제

등에 참가했다. 어머니합창단은 2006년 1월 '평택시여성합창단'으로 개칭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이합창단'은 모복일이 초대 단장을 맡았다. 김종숙 선생은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한 뒤 1대 지휘자로 심포니음악학원을 운영하던 한영옥을 임명하고 각 학교로 홍보전단

을 보내 국민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 중 합창을 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을 모집했다. 초창기임에도 학생 40여 명이 모였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이들은 주로 합정동 태양탕 앞에 있던 심포니음악학원에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합창연습을 했다. 어린이합창단의 첫 번째 연주회는 평택동 평택문화원 옆에 위치한 평택복지관에서 있었다. 복지관은 여름철에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기도 했고 무대가 아래로 무너졌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어린이들의 맑은 화음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합창을 듣기 위한 시민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 공연 이후 어린이합창단은 평택지역에 있는 각 교회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이어갔고 가는 곳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활발했던 평택지역 합창의 면모를 과시하듯 1991년 6월 27일에는 그해 3월에 한광학원 4개 중고등학교 남자 교사들로 구성된 '험시바중창단'과 송탄에서 활동하던 '늘고운합창단' 등 6개 합창단체가 출연하는 합창제가 펼쳐지기도 했다.

남성합창단과 평택시합창단

송탄에서는 1990년 음악협회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송탄시립합창단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송탄시의 지원이 없는데다 단장이 유고하면서 실질적인 해체상태를 맞았다. 이후 각 교회 합창단원 중 일부가 모여 신윤철 단장을 중심으로 ‘늘고운합창단’을 창단했다. ‘늘고운합창단’은 대학을 졸업한 교사와 음악도가 많아 보다 전문적인 형태의 합창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평택시합창단’은 통합 평택시 출범 이후인 1996년 5월 평택시의 제안에 따라 ‘평택시민합창단’으로 창립했다. 초창기 평택시민합창단은 강상규 지휘자를 필두로 45명의 단원들이 모여 창단했다. 당시 강상규 지휘자는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남녀 학생들이 합창단원으로 많이 지원했다. 지역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구두 홍보로 모집했던 10여 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평택시민합창단은 당초부터 시립합창단을 지향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람들만 고집하지는 않았다.

남성들로만 구성돼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소사별남성합창단’은 2002년 5월 ‘아버지합창단’으로 창단했다. ‘아버지합창단’은 IMF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들이 모여 노래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던 아버지합창단은 꾸준한 공연으로 남성만의 중후하고 풍부한 합

창하모니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아버지합창단은 2005년 1월 ‘소사별남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4년부터 개최한 ‘창작동요 합창 대축제’는 2006년까지 행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 ‘창작동요 합창 대축제’는 평택을 주제로 한 노랫말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을 뽑고, 당선작은 위촉된 작곡가들이 합창과 독창, 중창 등 다양한 형태의 노래를 작곡해 무대에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창작동요 합창 대축제는 어린이들이 음악을 중심으로 애향심을 키우고 창작동요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많은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장식했다.

평택지역 합창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낸 김종숙 선생은 2010년 일흔이 넘는 나이에 다시 지휘봉을 잡고 노인 120여 명으로 구성된 ‘실버단비합창단’ 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평택에는 당시 김종숙 선생이 창단한 많은 합창단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김종숙 선생이 길러낸 수많은 제자들 역시 음악계에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다. **소사별**



제40회 평택시합창단 정기연주회(2017)

ㅎ
ㅈ
ㅎ
ㅈ
ㅎ
ㅈ
ㅎ
ㅈ

앞에서 발견하는
송탄 미군기지
문화 다양성

이생강 한치각 디렉터

hanchi.co.kr



[협업공간_한치각]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 11번길 9-2
오전 10시~19시

Site hanchi.co.kr

Insta hanchi_gak

E-mail hanchi_gak@naver.com

ㅎ
ㅈ
ㅎ
ㅈ

우리는 몰랐던,
우리의 빛나는 가치.

[협업공간_한치각]이 자리를 잡은 신장동은 K-55 미군기지 바로 앞에 있다.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송탄관광특구-쇼핑몰이 있고 평택국제중앙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옛 지명은 '송탄'. 1963년 1월 1일 송탄면이 송탄읍으로

승격하였고 1981년 7월 1일 송탄읍이 송탄시로 분리 승격 됐다. 지금은 송탄출장소, 송탄동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951년부터 미군기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70여 년을 미군과 함께 살아온 도시이다. 미군이 있다고 해서 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

의 친구, 또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송탄에 자리 잡고 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국 음식, 패션,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덕분에 신장동(구 송탄)은 '경기도의 이태원'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여럿의 방문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여기(신장동)에 오니까 해외여행 온 것 같아요” 혹은 “별로 볼 것이 없네”이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그 답은 '신장동의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의 차이다. 신장동은 잘 포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꼭꼭 숨어있는 가치를 잘 찾아내어주고 서로 바라봐 주고, 서로의 빛나는 가치를 알아봐 주어야 빛이 나는 동네이다. 신장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찾아내어 '예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우리는 [협업공간_한치각]을 오픈하게 되었다.

신장동의 지역콘텐츠를 담은 그릇, [협업공간_한치각]

신장동에는 미군을 대표하는 햄버거, 부대를 상징하는 부대찌개, 고기잡뽕이 유명한 영빈루가 있다. 이들을 찾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바이커(BIKER)가 있다. 자연스럽게 항공점퍼, 워커, 선글라스, 패치(patch)가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지는 오버로크(overlock) 장인이 신장동에 있다. 밤이 되면 슬그머니 부대 앞에 나타나는 소금튀김 마차가 있다. 마차의 어머니들이 튀김에 뿌리는 소금 퍼포먼스는 신장동 여행의 정점이다. 상품과 음식이 유명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누가'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다.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각종 한국식 튀김에 미국 후렌치후라이(감자튀김)처럼 소금을 뿌려 판매하기 시



미스진햄버거



하이웨이 가죽



소금튀김 마차



다양한 부대패치

작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튀김을 간장이나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지만, 신장동에서는 소금을 가득 뿌린 튀김을 먹는다. 독특한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이야기 속에서 탄생한다. 매우 작은 부분인 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가치가 생긴다. 어느 곳보다도 바삭한 튀김과 소금의 알갱이가 무엇보다도 맥주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연결해 생각해보면, 신장동의 특징들이 수궁이 간다. 원래 이 마차는 3마차가 있다. 안경집, 부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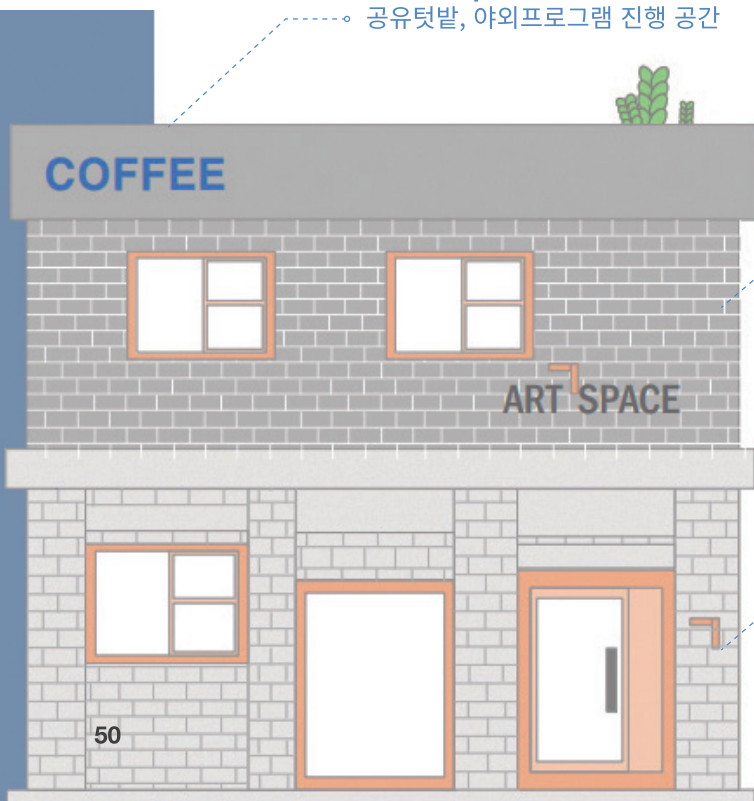
할매집. 그런데 2021년 어머니 한 분이 바뀌셨다. 이렇게 한 세대가 바뀌고 있다. 누군가 기록해놓지 않으면 절대 남아있을 수 없는 지역의 이야기를 [협업공간_한치각]이 담으려 한다.

주민-예술가-지역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협업공간_한치각]

‘한치각’의 뜻은 일본말 다루끼, 한자어 각목의 우리말이다. 한 치와 한 칩이 각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 [협업공간_한치각]은 아직 문화가 싹트지 않은 신장동에서 문화의 기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신장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며 엄청난 속도로 오피스텔과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누군가는 그것이 개발의 징조라며 반기는 사람도 있다. 변화의 바람을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 [협업공간_한치각]은 아예 새로운 신장동이 되기 이전에, 미군기

Rooftop

공유타발, 야외프로그램 진행 공간



2F 아트스페이스



1F 협업공간&카페





'Colorful Street', photo by 빠박이김작가



김윤아 작가의 'LOVE'

지와 함께한 70여년 마을의 이야기를 잘 담아 두려고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주민과 예술가, 예술가와 지역을 연결하고 폭넓은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담고 가치를 보존하려 한다. 한치각의 1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다. 카페와 아트마켓이 있다. 2층은 아트 스페이스이다. 전시와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진다. 3층은 ROOF TOP으로 공유 텃밭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이부록 작가의 '로보상점' 전시와 김영길 작가의 'The Land of Father' 전시가 진행되었다. 2021년 신중년 '집콕다방' 프로그램과 평택 작가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협업공간_한치각]의 첫 번째 지역에 말 걸기.

<Colorful Street>

신장동에는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기찻길을 여기서는 아주 가깝게 볼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 있다. [협업공간_한치각]은 예술가들과 이 곳에 신장동의 '문화다양성' 보여주고자 했다. 대표인 빈울 작가는 총감독과 작가로 참



변화된 국제시장 제1공영주차장과 철길

여하였다. 문화가 풍성한 신장동을 색채로 재해석 하여, 벽면과 기찻길 바닥까지 모두 작업하였다. 오피(오리지널 핑크) 작가는 국제시장 제1공영주차장 벽면에 신장동의 지역콘텐츠를 담았다. 김윤아 작가는 다양한 피부색(Skin Tone)으로 아름다운 단어 'LOVE'를 완성시켰다. 이병찬 작가는 이 곳을 무대로 퍼포먼스 영상을 준비 중에 있다. 아직 작업 중간인데도 상인들, 방문자들, 주민들이 포토존으로 이용 중이다. 조금만 문화로 변화를 주면 우리의 삶이 10%정도 행복해지는 기분을 맛볼 수 있다. 한치각은 이렇게 조금씩 예술과 문화가 더해져 우리의 삶이 조금씩 행복해지기를 신장동에서 꿈꾸고 있다. **소사별**



목조각가

木彫刻家

현종진 문화재수리기능자 제4698호

사회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편리한 생활은 더욱 익숙해져만 간다. 그 속에서 묵묵히 목조각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현종진 목조각가가 있다. 현종진 목조각가는 불상 조각의 인자한 미소에 빠져 합천 해인사로 찾아가 전기만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목조각 이수자가 되었다.

현종진 목조각가는 전통기법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대한 조각도만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사포도 사용하지 않고, 기계의 도움도 최소한으로 하다보면 수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 천 번 아니 수만 번의 나무를 깎게 된다. 그래서 조각을 한 번 시작하면 오롯이 조각만을 생각해야 한다.



매화죽비

목조각은 조각의 소재인 나무가 가진 양감과 질감을 표현하는 전통조각이다. 주로 사용하는 재료로는 결이 아름답고 견실한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이 많이 사용된다.



채색 전 배꽃조각



채색한 배꽃조각



대중에게 더 가까이, 공방 진진

30여 년 동안 전통 목조각을 해나가면서 계속해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 목조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전통 목조각을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더불어 스승님이 그러했듯 목조각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상 조각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생활 목조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장승, 그릇 원목 테이블과 의자, 다기, 탈 등 친근하면서도 친숙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목조각을 고민했습니다. 평택에 공방을 내게 되면서 평택의 시화인 배꽃을 활용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평택의 전통 목조각을 계승·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생활 목조각품



다시 마주한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고목(古木)나무

이 작품은 400년이 넘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불에 타서 껍질만 남아 있던 느티나무 고사목을 20년 전에 구해와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이 나무를 다시금 꺼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보고 싶어 나무의 불 탄 부분을 손질하고 나무에 꽃을 조각하였습니다. 20년 만에 작품이 된 고목나무를 보니 '다시 마주한'이라는 작품명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古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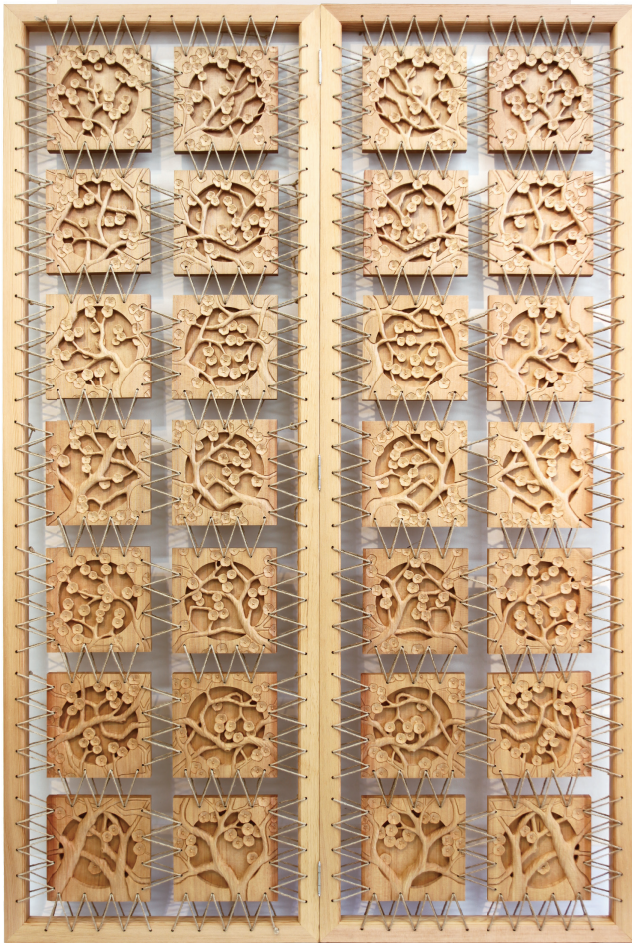
겨울을 지나...



가지와 꽃

매화, 겨울을 지나 봄이 오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은 '매화'입니다.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아무리 추운 겨울도 지나면 눈 속에서 화사하니 생명력 강하게 지조를 지키며 피는 꽃 매화가 있습니다. 현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굳건한 마음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화'를 테마로 준비하였습니다.



소통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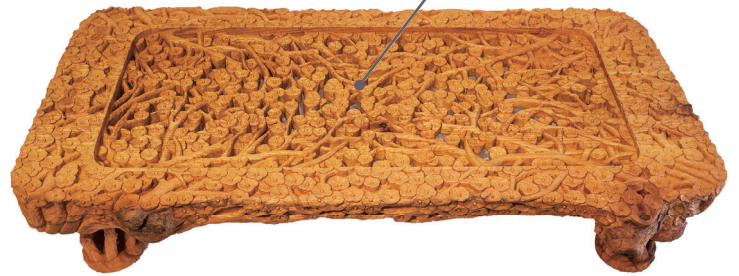
매화나무는 일생 동안을 추운 밖에서 자라고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향을 팔지 않는다는 뜻으로 매화의 곧은 절개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다.



常常(상상)

오래된 나무가 버텨온 그 숭고한 세월과 고결한 기품, 인내를 평생을 마쳐온 조각으로 나뭇결의 선의 아름다움과 배려와 사랑을 담아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으로 다듬어 보았습니다.

목조각장의 길을 걸어오면서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 묵묵히 전통을 이어가고 계승하려고 노력한 이 길에 매화 가득 한 번 담아 보여드립니다. **소사벌**



매화 찻상



2020 평택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
御史 朴文秀

2020년 12월 3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유튜브 검색창에
평택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를
검색해보세요. **YouTube**



박문수는 평택 진위에서 출생하여 영조시대 암행어사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인물입니다. 평택에서의 어린 박문수의 영민함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와 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를 처단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내용, 그를 아꼈던 영조와의 관계를 오페라로 담아내었습니다.

#1 현감행차

현감 대감의 행차를 지켜보며, 사리사욕에 눈먼 탐관오리들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모습에 분노한 박문수는 백성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응징해 싸워서 왕께 보답하겠노라고 다짐한다.





#2-2

‘군신의 대화’

영조와 박문수가 자신의 충신임을 칭찬하고 백성들을 위해 개혁해야 될 박문수의 조언들을 영조는 귀 기울이며 영조가 깊은 생각에 잠기 듯 갑자기 느려지며 어사의 직분을 하사한다.

#2-1 영민한 꼬마 문수

여종인 길순이(소프라노)가 아버지의 생신이라 쌀을 훔친 것이다. 어린 박문수는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 설득하고 쌀을 나눠주며 오히려 자비를 베푼다.



#3-1 ‘소년 문수의 지혜’

박문수는 아이들이 사또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6살 박문수는 어느 날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촌인 종성과 집안의 문벌에 대해 이야기한다. 깊은 베이스 음 시작으로 박문수는 잠이 들고 꿈속에 어머니가 등장하며 ‘형제 우애, 부모 효도’의 덕목을 3중창(어머니, 이종성, 박문수)으로 노래하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다.



#3-2 ‘현감 모친 진갑 잔치와 어사 출두’

갑자기 짧은 음형의 피아노 선율로 분위기가 밝게 전환된다. 배고픈 마을 사람들은 현판 대감 모친 진갑 잔치를 준비하며 백성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현감에게 분노하는 노래를 부른다. “현판 댁은 풍년이요, 백성들은 흉년이요” 역줄들이 뛰어와 이방과 현감을 묶고 박문수는 마패를 지켜든다.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를 찬양한다.

“

천 년 동안 고을을 지켜온
주산 무봉산 기슭 아래
삼남대로 가로질러 자리 잡은 터
조선 오백 년 역사 속에 빛나는
어사가 태어난 곳 백성은 꿈꾼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태평성대~~

”

- 2020 평택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 中 에필로그 -



■ 관람후기

평택의 역사인물 ‘박문수’를 바라보다

김형미 관람객

평택시 진위면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어사 박문수를 재조명하는 창작 오페라가 12월 3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비대면 영상촬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2020 평택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는 3막 오페라로 진행되었으며 어사 박문수의 현실과 과거 그리고 꿈을 넘나들며 박문수의 일화를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제작진, 출연진 모두 최선을 다한 훌륭한 무대였다.



평택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 포스터



평택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 에필로그

평소 어사 박문수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해 공연을 보기 전 어사 박문수의 일화와 업적들에 대해 미리 찾아보았고 그로 인해 더 집중해서 오페라를 볼 수 있었다. 어사 박문수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 아이들과 집안 식솔들에게 영민함을 보여주었고 암행어사가 되어서는 민심을 살피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발견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였다. 오페라 내에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을 담으면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현대적 감각의 음악으로 처음 오페라를 접하는 사람에게도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백성은 꿈꾼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대평성대를”

이 가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표현인 듯하다. 적폐 청산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사 박문수의 정의로움과 살신성인의 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교육적인 귀감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평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공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 오페라 공연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이나 다름없는 불모지인 평택에서 박문수를 매개로 지역의 인물들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평택에서 박문수의 흔적 찾기

박문수는 1691년(숙종 17) 9월 8일 경기도 진위에서 박항한(朴恒漢)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공조참판을 지냈던 이세필(李世弼)의 딸이다. 조선시대 외가에서 출생하던 관례에 따라 박문수는 진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친인 박항한은 박문수가 여덟 살 되던 해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인 박선(朴銑)과 큰아버지인 박태한(朴泰漢)은 이미 두 해 전에 세상을 떠나, 친가 쪽 어른이 없던 박문수는 자연스레 외가 쪽에 의지해 자라게 되었다.

박문수의 외할아버지인 이

세필은 당대의 명문가인 경주 이씨이자 조선 중기의 명신인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기도 하였다. 이세필은 1689년 관직을 버리고 진위로 낙향하여 아곡마을을 일구었다. 이세필의 아들인 이태좌(李台佐)는 소론의 중심인물로 박문수는 어렸을 때부터 이태좌의 집에서 사촌인 이종성과 함께 글을 배웠다고 한다. **소사렬**



박문수 초상



박문수 외조부 이세필의 묘(진위면)

제1회 **金南***지역문화 글짓기공모전 버금상 수상작

우 리

동 네 의

지 역 문 화 재 ,

대 동 법 시 행 기 념 비

이연호 용이초등학교 학생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지역 문화재인 유형문화재가 하나 있다. 우리 집으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도유형문화재 제 40호로 등록된 대동법시행기념비이다. 작년에는 안성에 살아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평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주말마다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자주 다니고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세금을 받을 때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토가 황폐해지고 악덕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가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졌는데 그 김육이라는 인물이 세금을 쌀로 매기도록 했다. 바로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공납제도가 방납으로 인해 부정부패의 아주 큰 원인이 되었고 갈수록 국가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동법시행기념비(소사동)



그래서 악덕관리들과 방납업자들의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모두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백성들의 삶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육이 시행한 대동법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쌀로 세금을 부과한 제도였다. 대동법은 최초에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삼남길의 바로 아래 지방인 충청지방으로 확대되어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대동법은 대한제국의 말기인 고종 때까지 계속 시행되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금제도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리하여 김육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세금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김육이 죽자 이를 슬퍼한 그 충청지방의 백성들의 김육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자 자발적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김육을 기리기 위해 바로 대동법시행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충청지방에서 대동법이 확대되어 시행된 것을 기념하여 삼남의 주 통로였던 평택 소사벌의 길목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를 잘 둘러보면 이렇게 우수한 지역문화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초등학교 및 청소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역문화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대동법시행기념비

제1회

金南* 지역문화 글짓기 공모전

공모대상	전국 초·중·고교	주최처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
공모기간	2020. 6. 25(목) ~ 6. 27(토)	제출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주제	우리 동네, 소중한 지역문화유산	제출문서	종이(표준), 한글(한글), 영문(영문), 한글(한글), 한글(한글), 한글(한글)
공모분야	글짓기 (4~10학년)	대상 및 배정	초·중·고교별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4등 4명, 5등 5명, 6등 6명, 7등 7명, 8등 8명, 9등 9명, 10등 10명
출품규격	글씨: 40cm x 60cm (가로) / 60cm x 40cm (세로) 글자: 1.5cm x 1.5cm (가로) / 1.5cm x 1.5cm (세로) 글자: 1.5cm x 1.5cm (가로) / 1.5cm x 1.5cm (세로)	수상금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 4등: 20만원 5등: 10만원 6등: 5만원 7등: 3만원 8등: 2만원 9등: 1만원 10등: 5만원	시상식 6월 27일(토) 14:00 ~ 16:00 장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품수령	출품 접수 후 1주일 이내 수령 가능	문의처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41-704-4611)

오늘날 세금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대동법은 당시에 백성의 어려운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여 제도가 만들어져 아주 우수한 세금제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공무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번 금남 지역문화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다. 한편으로는 지역문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문화재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소사벌**

금남 지역문화 글짓기 공모전

제1회 금남 지역문화 글짓기는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어린이·청소년 세대가 지역문화에 관심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과 연결고리를 생성하고 **故 금남 이수흥(제22대·23대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선생**을 기리기 위해 개최했다.

진교 일기

진위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의 일기

『진교일기』 발췌



진위국민학교(1955)

진교일기 표지

元年十月十五日始記
 部
 孟肅晴終日所寒自學府職員姓名及在席生出
 生校有財團詳查報明訓令來到
 部
 而朝陰進校時入東軒則取板所雇員自學府
 校經費金出給命令書來到云午點量雨雪且風與
 員各分一杯買南草一斤西則業文三兩五錢終夜風
 不止聲撲窓戶甘眠未成 教員鄭範時也
 申辰朝陰微雪晚晴進校時往取板所欲推經費金
 社長言內出給命令姑未來到云昨日雇員所言甚為
 感校室冷如寒冰未能久為視務午點還旅館夜





진위국민학교(1975)

1. 기본 서지사항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진교일기(振校日記)』는 32장 64면의 1책이다. 1면당 10행이고, 1행당 20여 자가 필사되어 있다. 글씨는 전통적인 선비의 해서체(楷書體) 보다는, 당시 사무원들의 글씨에 가깝다.

진위군 원고지에 쓴 필사본(筆寫本)으로, 표제는 『진교일기』이다 ‘진위학교 일기’라는 뜻인데, 설립 초기부터 학교 이름이 자주 바뀌었으므로 통칭(通稱)으로 기록한 것이다. 서문이나 발문, 그밖에 참고할만한 필사기(筆寫記)는 없다.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진교일기’라는 제목의 정확한 뜻은 ‘진위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의 일기’이다. 물론 학교에 관한 내용이 많지만, 개인적인 내용도 많이 기록했으며, 학교 운영자인 군수와 저자의 관계도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적인 관계까지 많이 기록하였다.

2. 저자

일기 기록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생도들에게 수업하는 내용이 한번도 보이지 않은 것을 미루어보면 행정을 맡았던 직원인 듯하다. 생도들이 머리를 깎기 시작하자 교모(校帽)를 사려고 서울까지 출장 가는 모습이라든가, 밀렸던 교원들의 봉급을 받아주려고 애쓰는 모습, 학부(學部) 보조금을 추심하고, 월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에 제출하는 모습들도 그가 직원임을 더욱 확실케 한다.

학교 건물이 따로 없던 시기였으므로 진위군 객사(客舍)를 교사(校舍)로 사용하고 있었고, 진위군수가 자주 학교에 들리며, 일기 기록자를 수하 직원처럼 부리는 것을 보면 군청에서 파견된 직원일 가능성도 있다. 1907년 12월 16일 일기의 “자용비(自用費)와 교용비(校用費)의 회계(會計)를 분석(分析)하였다”는 구절에서 직원으로서의 꼼꼼한 모습이 돋보인다.

일기를 한문으로 기록하였지만, 몇십년씩 과거시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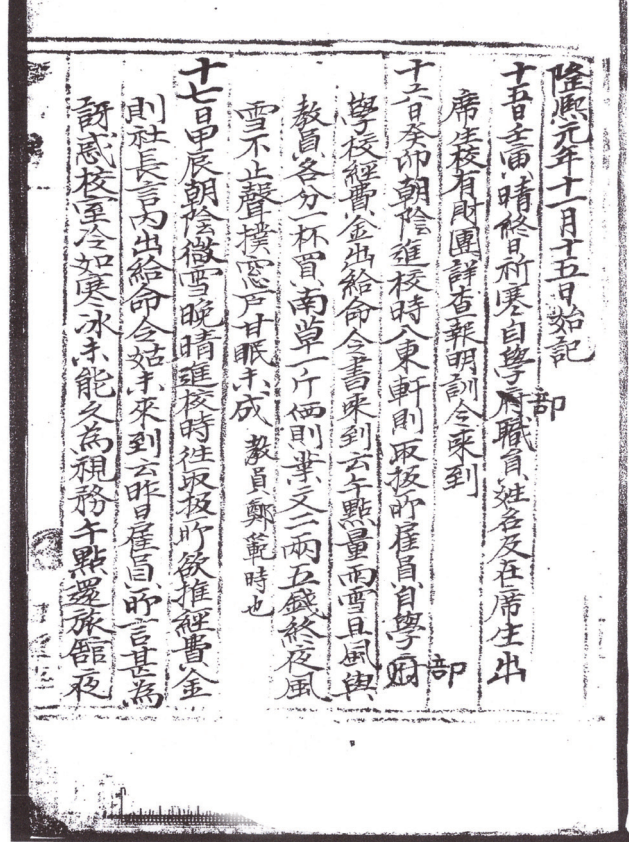
부를 하여 문장이 유창한 세대가 아니어서 문장이 다소
 꺾인다. 한시(漢詩)도 짓긴 하였지만 기본적인 운(韻)이
 나 맞추는 정도이고, 고사(故事)를 섭렵하여 함축된 시는
 아니다. 서당을 거쳐 보통학교 정도를 졸업한 학력으로
 보이며, 진위군 출신이 아니어서 부모와 떨어져 여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아마도 20대 청년인 듯하다. 1908년
 10월에 길일을 택하여 결혼 날짜를 잡고 혼수(婚需)도 준
 비하였는데, 정작 결혼하는 1909년 초의 일기가 빠져서
 결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체계

1907년(순종 1) 11월 15일부터 1909년 3월 29일까지
 기록한 개인 일기이다. 1년에 몇 달씩만 남아 있지만, 각
 연도의 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1907년의 경우 “隆
 熙元年十一月十五日始記”, 1908년의 경우 “隆熙二年九月初
 一日”, 1909년의 경우 “隆熙三年二月十八日”이라고 명시
 하였다.

날짜가 바뀔 때마다 행 바꿈을 하여 체제가 정연하다.
 글씨체도 정연한 것을 보면, 그날 그날 기록했던 초고가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한 원고로 보인다. 이 일기
 의 분량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 도	분 량	기 간
1907	1면 ~ 18면	1907년 11월 15일 ~ 12월 26일
1908	19면 ~ 45면	1908년 9월 1일 ~ 12월 23일
1909	47면 ~ 64면	1909년 2월 18일 ~ 3월 29일



진교일기 원문

4. 『진교일기』의 내용상 의미

『진교일기』는 1907년 음력¹⁾ 11월 15일(양력 12월 19
 일)부터 1909년 3월 29일(양력 5월 18일)까지 진위공립
 보통학교에서 대략 1년 5개월 정도 근무했던 필자의 생
 활을 담고 있다. 그는 봉남리에 숙소를 정하고 출퇴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의 진위면 행정복지센터 남쪽
 ‘주막거리’ 또는 진위초등학교 남쪽 ‘마방’ 주변일 가능성
 이 높다.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내
 용이 없어 그의 직책은 알 수 없다. 다만 일기 내용에 ‘군
 수(郡守)와 친구삼아’ 또는 교원(敎員)이었던 정범시(鄭範
 時)와도 ‘친구삼아’라는 표현이라든지, 학교 시험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말단 직원²⁾은 아

1) 일기의 날짜가 음력으로 되어 있어 이하 일기의 날짜를 언급할 때는 음력으로 표기하고 괄호에 양력을 병기하며, 다른 날짜는 양력으로 표기한다.

2) 여기서 ‘직원’이란 요즘 사전적 의미인 ‘직장에 소속되어 직무를 맡아보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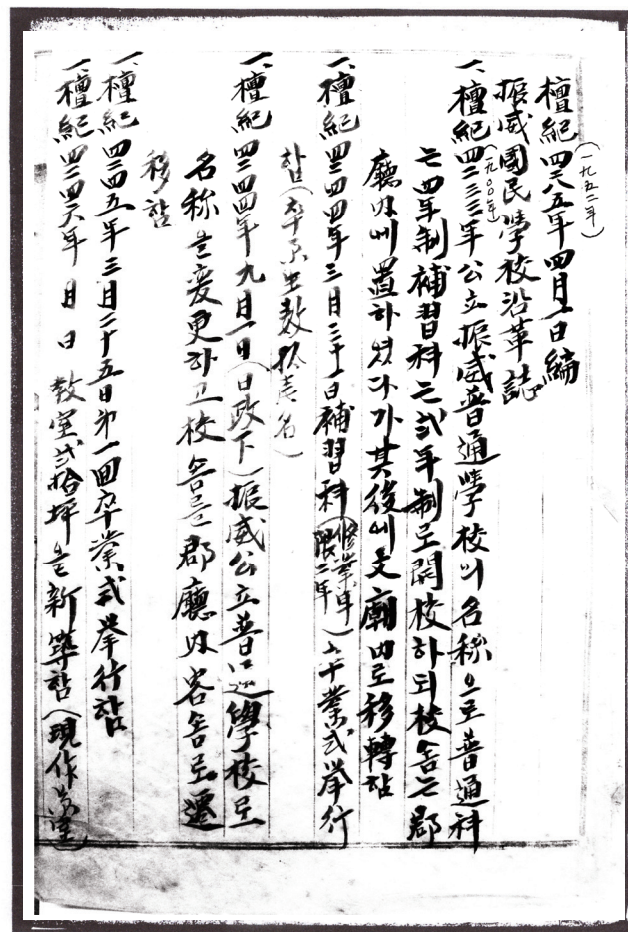
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기의 필자는 거의 매일 위로는 군수(郡守) 또는 주변 마을 유지(有志)로 추정되는 인물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학생, 그리고 신분을 알 수 없는 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에는 평택의 근대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덕면 율포리의 이범창(李範昌)·이범철(李範喆) 형제나, 서탄면장을 지내며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윤기선(尹箕善) 같이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도 등장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내용을 적는 과정에서 '아곡(牙谷)', '동천리(棟泉里)', '마산면(馬山面)', '구천(龜川)', '방혜동(芳蕙洞)', '만기사(萬奇寺)' 등의 지명도 등장했다. 어떤 날은 봉남리 뒷산에 있는 심순택(沈舜澤) 묘가 있는 산자락에서 여유를 즐기기도 하였다. 경부선 부설 때 철도역으로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진위역'에 대한 언급도 있다.

진위소학교로 개교되었던 진위보통학교는 마땅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진위 관아 시설이었던 객사(客舍)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향교로 옮겨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의 진위초등학교 위치로 옮겼다. 이 일기에서는 독립된 학교의 신축과 운동장 공사 등에 대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진위초등학교의 초기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이 학교가 평택지역 최초의 근대 학교인 만큼 입학생 중에는 멀리 사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거나 구술로만 등장했는데, 일기를 통해 방혜동이나 모곡동 같은 마을 아이들도 입학 대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교일기가 쓰인 시기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배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전통적인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의식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체조교사가 군수 앞에서 '학생과의 갈등' 때문에 학교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군수는 학생들을 나무라는 내용을 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은 시대적 분위기를 넘어서는 문제였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소사별**



진위국민학교 연혁지

부록 진위국민학교 연혁지

이 연혁지는 진위국민학교(현 진위초등학교)의 개교부터 현재까지의 연혁을 기록하고 있으며, 1952년에 최초 작성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명칭변경, 학과운영, 학교 교사(校舍)의 신축과 증축, 졸업현황, 역대교장 등이 기록되어 있다.

平澤夜行

2020 평택야행

- 문화유산은 도시의 정체성 -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평택현감 이승훈과 함께 떠나는 팽성야행



문화재야행(夜行) 프로그램은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관람·개방, 체험, 공연, 전시 등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이 2016년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서울 중구, 충북 청주, 강원 강릉, 충남 부여, 경북 경주, 전북 전주 등 역사문화가 깃든 도시 10개를 선정해 야경(夜景), 야설(夜說), 야로(夜路), 야식(夜食), 야사(夜史), 야시(夜市), 야화(夜畵), 야숙(夜宿) 8가지를 테마로, 지역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됐다.



박문수와 함께 떠나는 진위야행

평택은 조선시대 진위현, 평택현, 수원부, 양성현, 직산현 등으로 구분되다가 1914년과 1995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평택에서도 야행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서울, 경주 등 대도시의 문화재 자원만큼 풍성하지 못한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 선 듯 나서기 힘들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야행 프로그램이 확장하는 추세에서 평택에서만 늦출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 고민 끝에 평택문화원은 한국축제포럼 평택시지부, 한국연극협회 평택지부와 협업이 필요했고 단체들의 고유역량 발휘를 통해 평택문화

원에서는 지역사와 문화재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연극협회에서는 상황극을 통한 행사의 진행을, 축제포럼에서는 참여자들의 장르와 장소에 맞는 공연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평택향교~팽성읍사무소~팽성읍객사로 이어지는 남부코스와 진위면사무소~진위향교~삼봉정도전 유적으로 이어지는 북부코스를 개발하고 ‘평택현감 이승훈과 함께 떠나는 팽성야행’과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 떠나는 진위야행’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평택야행을 기획했다. 하지만 애초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늦가을 날씨로 접어들었다. 다행히 10월이 되면



서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서며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총 4회에 걸쳐 각각 40명을 정원으로 평택야행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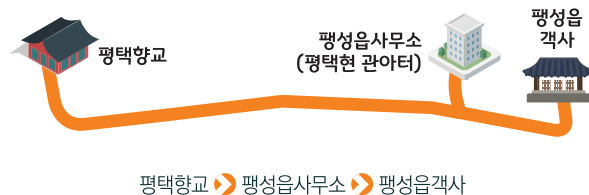
예상외로 시민호응은 대단했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빛장이 채워졌던 문화유산을 개방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가치 창출과 전통공간에서의 문화공연이 성공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문화기획자, 예술실연단체, 예술가,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예산절감 효과까지 얻었다.

평택은 벌써 인구 54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고,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과 가족 등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다. 문화향유에 대한 이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문화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정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평택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느끼게 할 것이다. 평택 문화원은 평택야행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시민과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평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해 좀 더 평택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서 문화재를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을 재발견할 수 있는 평택탐방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소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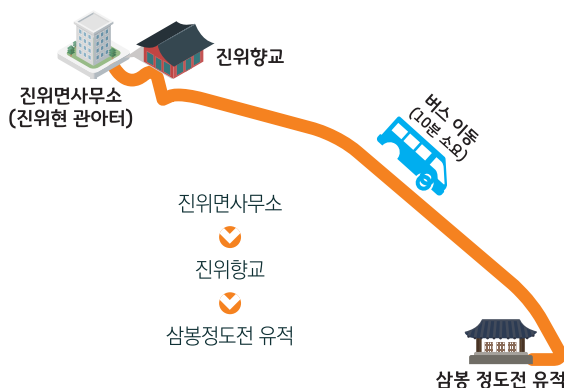


평택야행 참가자 단체사진

평택현감 이승훈과 함께 떠나는 <평성야행> 주요방문지



박문수와 함께 떠나는 <진위야행> 주요방문지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2020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팀



덕암산 정상 표지석

덕암산 산신각과 선원

평택 북부 시민들은 부락산에서 덕암산을 왕복하는데 일부 산꾼들은 부덕고백(부락산~덕암산~고성산~백운산) 종주를 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산이 덕암산이다. 난이도가 아닌 평야 비율로 따지면 설악산 대청봉급이다. 그곳 덕암산 자락에 산신각과 선원이 있다.



평택시 도일동 덕암산에 가면 산신령과 호랑이 그리고 돌부처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너른 들이 특징인 평택에서 해발 100m면 강원도 1,000m급이다. 평택의 명산 부락산이 150.5m, 덕암산이 164.5m면 설악산 중청, 대청봉급이다. 따라서 덕암산 산신령께서 호랑이를 애완용으로 거느리는 스토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전설의 산이다.



덕암산 산신각(1994)

원래 산신당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됐다. 해방 후 움막으로 재건 했고 6·25전쟁 당시 대목 원씨 어르신이 정성을 다해 새로 지었다고 한다.

덕암산 산신각(2020)

경기도마을문화사업으로 2000년대 새로 지어진 산신각이다. 상리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 산신제를 지낸다.



덕암산 산신각 내부

산신각 내부로 들어서면 첩첩산중 덕암산에서 호랑이를 애완용으로 거느리시는 산신들이 보인다.



덕암산 선원

덕암산 선원은 석불을 모시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 시주해 세웠다. 현판은 없고 정면 2칸 측면 1칸의 우진각 양식의 함석지붕이다.



덕암산 선원 석불좌상

가운데 모셔진 석불좌상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석고를 바르고 색칠을 해서 원형을 알 수가 없다.



2020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팀

(왼쪽 부터 장연환, 김해규, 윤한택, 장수아)

‘2020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는 김해규, 윤한택, 장수아, 장연환, 최치선 등 전문연구자들과 송탄동 브레인시티 개발구역 (도일동,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 모곡동)에 대한 기록 작업을 했다. 인문지리와 구술이 담긴 800쪽 분량의 자료는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사라져가는 마을 아카이브>에 가면 볼 수 있다. **소사릴**

제3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 우수상 수상

피우치이중계

避憂峙里中稷

편집부

里中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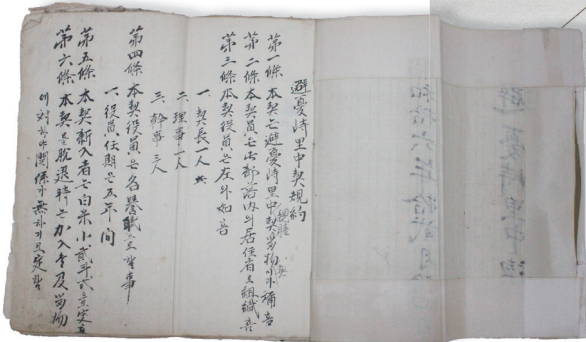


근현대 민간기록물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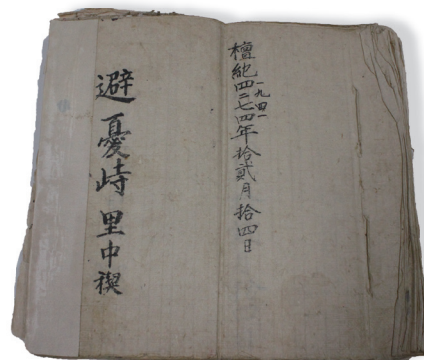
2018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0년 제3회를 맞이하는 근현대 민간기록물전은 근현대 민간기록물전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기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주최는 공모전이다.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 '제3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 우수상을 받는 이신현 이장



피우치이중계 규약



피우치이중계 표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2020)에서 평택시 현덕면 운정1리의 '피우치이중계'가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 장상)을 수상하였다.

전통시대 공동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모임 형태 중 하나가 '계(契)'이다. 계는 주로 작은 공동체 단위로 형성되고, 내용에 따라 종중계, 산계계, 혼구계, 상구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모두 향약 정신에 기초하여 규약을 정하고, 회원들의 회비를 자본금 삼아 대출로 이자를 취함으로써 회를 유지하였다. 회원은 단위지역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는데, 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원간의 신뢰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우치이중계는 1941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1리 피우치마을을 중심으로 대정, 글경

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친목과 화합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규약, 임원, 세입 및 지출 등이

기입되어 있다. 최근까지 이민훈 전 운정1리 이장이 이중계를 작성해왔으며, 현재는 이신현 이장이 보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이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받아 우수상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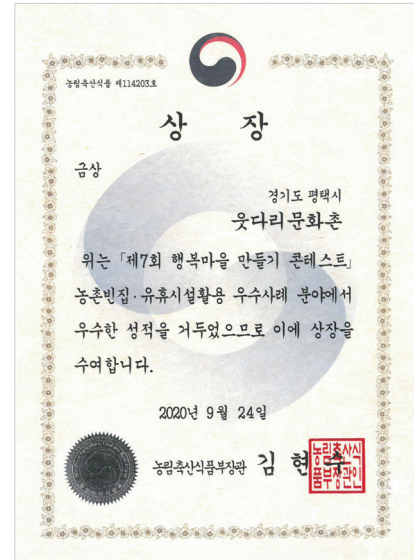
평택문화원에서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 과정에서 피우치이중계를 발굴하였고 공모전 참가를 지원하였다. 이 자료는 피우치이중계는 해방전후부터 현재까지 평택마을모임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민간기록물이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 마을과 지역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되었다. **소사별**

2020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빈집·유희시설활용 우수사례’

웃다리문화촌 금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웃다리문화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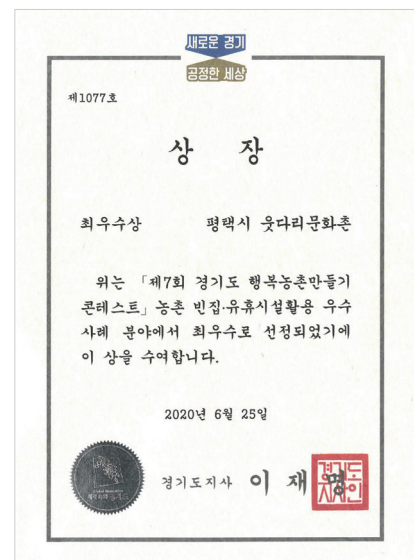
행복농촌 만들기 금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0년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포스터



목련이 활짝핀 웃다리문화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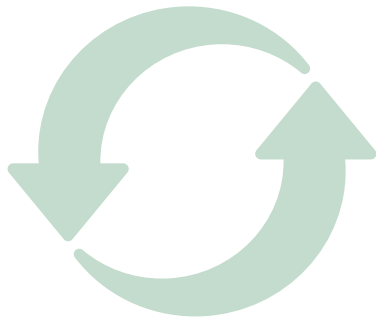


행복농촌 만들기 최우수상(경기도지사)

폐교로 버려진 공간이
마을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행복농촌 만들기 동판을 부착한 웃다리문화촌



지역 주민 협력 프로젝트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재생

웃다리문화촌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장입니다. 2000년 8월 폐교한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리모델링 해 지난 2006년부터 주민과 함께 꾸려오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된 금각분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자 우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뜻을 모아 폐교 활용 계획을 세우고 주민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폐교 운동장의 웃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비행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 친화적 문화예술체험을 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웃다리문화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는 지역 어르신들의 역할이 큼니다. 어르신들은 웃다리문화촌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장승·숫대만들기' 수업에서 직접 강사로 활동하며 문화예술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하고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결선발표

자연 친화적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으로 지역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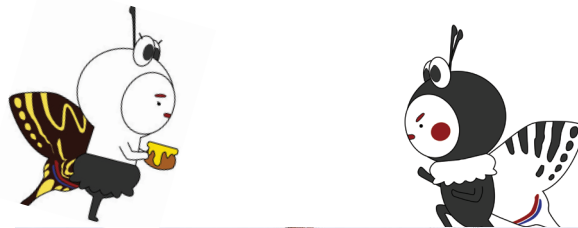
취방울덩굴 육묘를 마을 주민
협동생산방식으로 육성하고
판매해 꼬리명주나비를
평택의 깃대종으로
복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웃다리문화촌은 이제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체험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평택자연연구소와 함께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꼬리명주나비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다회성 나비로 매우 특이한 종입니다. 웃다리문화촌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꼬리명주나비 생태학습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위천 냇가에서 자생하는 꼬리명주나비를 웃다리문화촌으로 옮겨와 꼬리명주나비 생태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에코뮤지엄 거점센터를 육성하려는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웃다리문화촌에서는 명주꼬리나비 서식지 조성 기금 마련을 위해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협동생산 방식으로 취방울덩굴육묘 판매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꼬리명주나비의 복원은 물론 주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꼬리명주나비정원



배추흰나비화단



웃다리문화촌의 봄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평택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웃다리문화촌으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할 웃다리문화촌

웃다리문화촌이 문화예술공간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재탄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웃다리문화촌은 문화예술체험 중심 공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험과 교육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예술가와 협업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소사별**



2018 소사별단오제



평택문화 CAFE

2021 소사별단오제 추진위원회를 만나다

최희련 평택문화원 사원

「Part 1. 시민의 축제 ‘소사별단오제」

예로부터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로 여겨져지고 있다. 단오의 풍속으로는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고, 이웃 간에 서로 부채를 선물하였다. 또한 악귀와 병마를 예방하는 풍습으로 향이 강한 쑥잎으로 수리취떡을 해먹고, 인형을 만들어 문에 걸어두었다. 단오의 민속놀이로는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등이 있다.

우리 평택지역에 단오제의 모습은 어땠을까?

평택문화원이 주관하는 소사별단오제는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단오제를 재현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온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고, 우애와 협동을 다지는 지역 잔치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동안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의 고사굿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공연, 평택시 각 읍면동 시민을 모집하여 농악,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전통주 경연대회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포머리감기, 단오음식, 각종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Part 2. 시민의 축제 ‘소사별단오제’를 위한 노력」

소사별단오제 추진위원회는 한상희 위원장을 필두로 박정순·윤석규·박철순·김미영·여운정·최창환·이계문·박기철·이순녀·유범동·김종수·최승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은 평택문화원에서 지역문화발전에 힘써온 임원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다양한 축제를 경험한 소사별단오제의 전문가다.

기존 소사별단오제는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읍면동 시민들이 모여 경연대회 준비를 하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겼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축제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소사별단오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기존 진행했던 축제에서 비대면으로 전환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시민이 참여 가능한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선진지 답사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① 강릉단오제 선진지 답사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합심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단오에 대해 홍보하는 목적을 갖고 축제를 추진하였다. 축제내용으로는 단오TV, 알쓸신잡, 방송중계 등으로 단오를 알리고, 단오체험팩과 챌린지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참고하기 위하여 소사별단오제 추진위원회는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로 만들고자 3월 25일(목)에 강릉으로 선진지 답사를 다녀왔다.



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축제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 추진위원회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릉단오제 홍보전시실 관람
단오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굿, 놀이 등의 전수자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남대천단오장과 단오전수관 이어주는 터널
남대천단오장과 단오전수관을 이어주는 터널에는 수많은 타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타일에는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이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적혀있다.



주요행사장 <남대천>
행사장 앞에는 아름답게 물결이 흐르는 남대천이 있다. 남대천을 따라 체험, 먹거리 등의 부스를 설치하게 된다.

② 소사별단오제 추진위원회 회의

소사별단오제 회의는 2021년 4월 7일(수), 4월 21일(수) 두 차례 걸쳐 평택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비대면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단오의 의미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기로 하였다.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었다. 이 풍습을 재현하여 우리지역의 풍년

및 가족의 건강, 평화, 사랑 등 소원을 빌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소사별 단오제를 알리고자 한다.

「Part 3. 전통과 현대를 잇는 소사별단오제」

평택문화원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

TALK 소사별단오제 한상희 추진위원회 위원장

강릉과 평택의 단오제를 비교했을 때 예산과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므로 별도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년 동안 단오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평택의 소사별단오제는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국가적 재난상황이 벌어지면 그마저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작년에 진행되어야 했을 소사별단오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결국 올해 비대면 진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풍습이자 화합의 장이 마련되는 단오제를 2년이 아닌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사별단오제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가장 중요했던 읍면동 경연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연대회를 통한 전통놀이의 맥을 잇지는 못하지만 더 폭넓은 민속행사로 확장성을 키우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소사별단오제만의 전통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요소를 알맞게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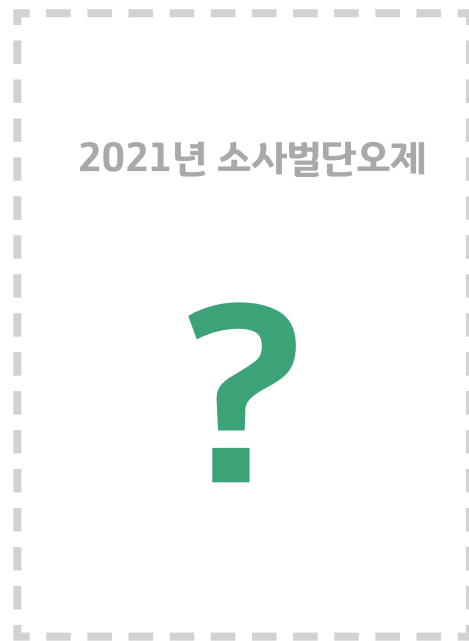
이번 비대면 소사별단오제를 통해 가능한 많은 시민들과 평택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단오'의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별단오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소사별단오제 제1차 추진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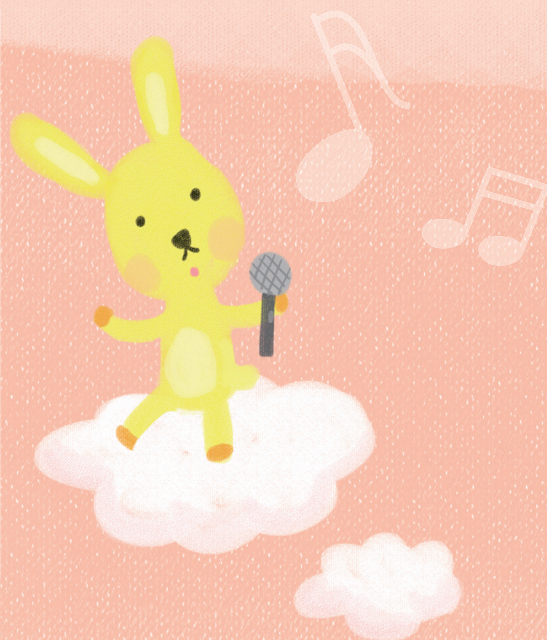
2020 온라인 강릉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하여 시민에게 전시, 체험, 축제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택의 역사·문화를 계승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항상 고민 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통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낼 것인가'이다. 지금까지는 경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을 통하여 경험하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체험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아졌다. 강릉단오제에서도 전통을 현대문화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하여 단오TV, 굿 생중계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강릉단오제의 전통과 현대의 매체를 잇는 프로그램은 <영산홍 챌린지>다. 이 챌린지는 2020년부터 유행한 것으로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대중들이 쉽게 따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서 노래를 홍보하는 것이다. 영산홍은 단오 때

대관령국사성황을 맞이하며 주민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로서 강릉단오제의 공식음악이다. 이 노래에 맞춰 안무를 따라하여 SNS에 게시하여 추천 수와 심사위원 평가로 시상하였다. 요즘은 30초~1분가량의 노래에 맞춰 혼자 또는 친구와 가족과 춤을 춰 자신의 SNS계정에 올린다. 이렇듯 <영산홍 챌린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축제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평택문화원 또한 온라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의 소원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권역별 공원에 게시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오선과 단오 컬러링엽서를 배포하여 SNS에 뽐내게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대에 흐름에 맞춰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 시민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꾸려나가게 함으로서 평택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소사벌**

구 분	수 상 자	곡 명
대 상	아이그린중창단	우리가족 행복의 주문
최우수상	이효정	아빠와 함께 왈츠를
	박예별	내 소중한 친구
우수상	화랑하늬중창단	가을화가의 풍경화
	이아진	내가 예쁜 이유
장려상	서희중창단	비밀
	작은꿈이크는아이들	동글동글 눈사람
	윤이섭	구름꽃 그늘
	이지민	노을꽃이불
고운소리상	라임트리프렌즈	부탁해 노을
	사랑웁다중창단	노을 샤베트
	이은채	소중한 시간
인기상	김나람	사과 한알
	양종연	할머니의 보물섬
지도상	유경수	우리가족 행복의 주문
	이선영	아빠와 함께 왈츠를
	최하나	내 소중한 친구
	이은경	가을화가의 풍경화
	홍계영	내가 예쁜 이유
최현규 작곡상	김푸른	우리가족 행복의 주문
노을 작사상	최하나	내 소중한 친구



노을의 고장 평택에서 펼쳐진

제7회 노을동요제

일시 : 2020년 11월 28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국소리터 지영희홀(평택호관광단지)



대상 아이그린중창단의 '우리가족 행복의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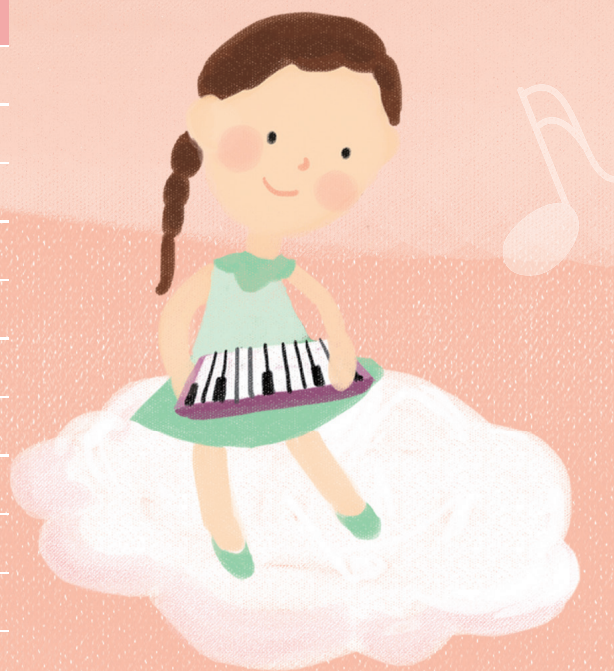


최우수상
이효정의 '아빠와 함께 왈츠를'



최우수상
박예별의 '내 소중한 친구'

구 분	수상자	곡 명
대 상	홍승연	마음과 마음이
최우수상	엄마와 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권보민	어느 봄날
우 수 상	엄예인	내 마음에는
	채윤희	장 서는 날
	임태은	거꾸로 보는 세상
	김동현	나무의 노래
	이소담	별
인 기 상	오서은	바람의 빛깔
	김예린	하늘나라 동화
맑은소리상	임연경	내 마음의 수채화
	임세은	달팽이의 하루
	드림걸즈	내 꿈이 몇개야
	김예별	봄을 닮은 벚꽃비
	정수현	꼭 안아줄래요
고운소리상	김시연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최지혜	나도 어른이 되겠지
	구민주	그 빛은 우리의 마음
	멜로디	노을
	최민서	수수꽃다리



온 가족이 함께 부르는 동요세상

제1회 평택시민 동요부르기대회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오후 6시

장소 : 한국소리터 지영희홀(평택호관광단지)



최우수상 권보민



대상 홍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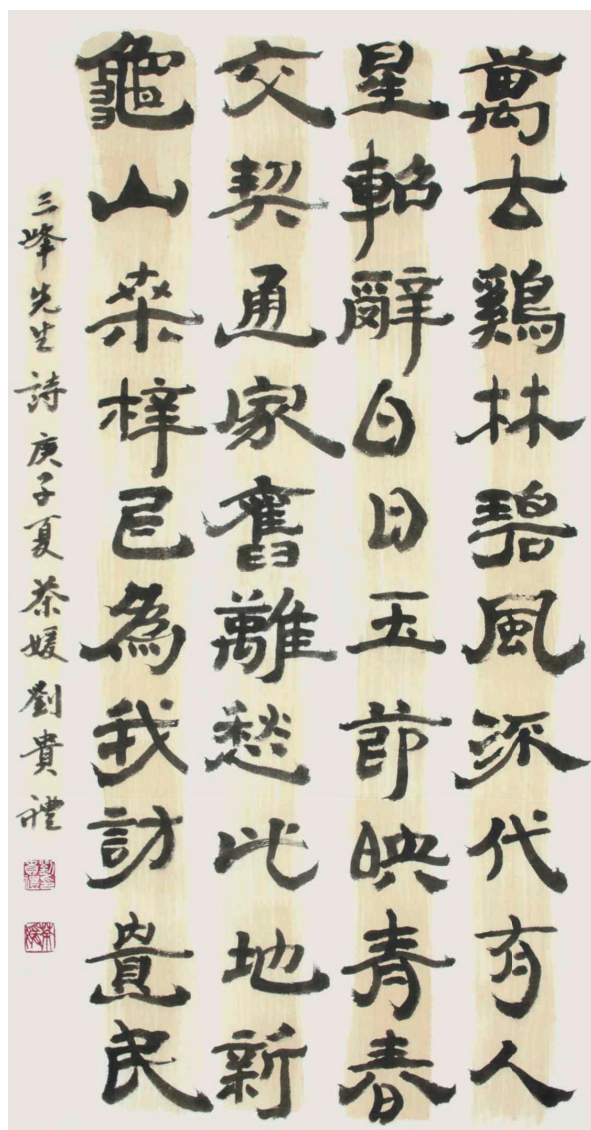


최우수상 엄마와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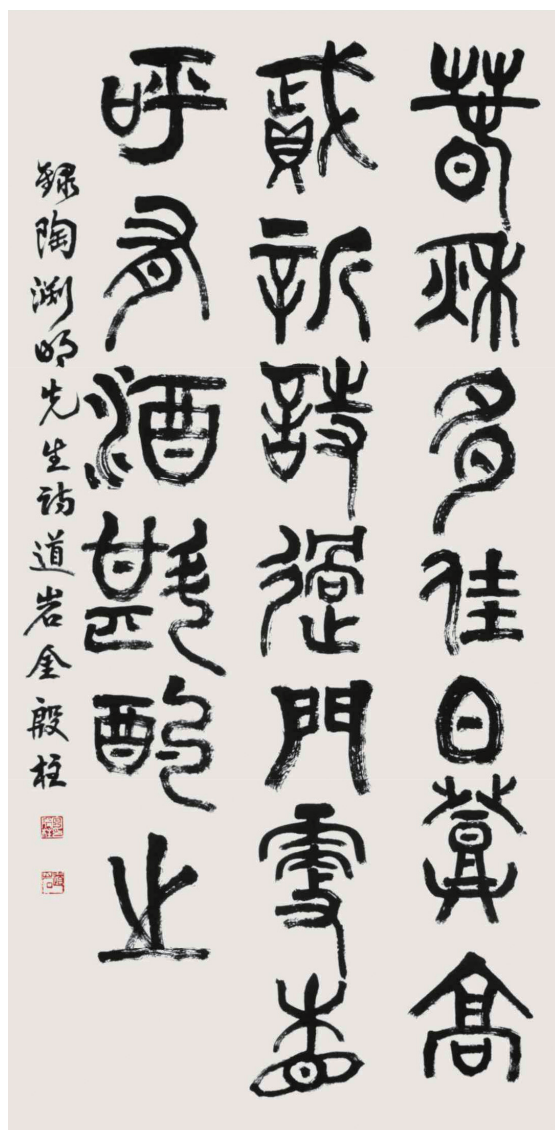
제 8 회 대 한 민 국 삼 봉 서 화 대 전

종합대상



다원 유기례 / 정도전 시(송정부령 흥 출안경상)

부문대상



도암 김은주 / 도연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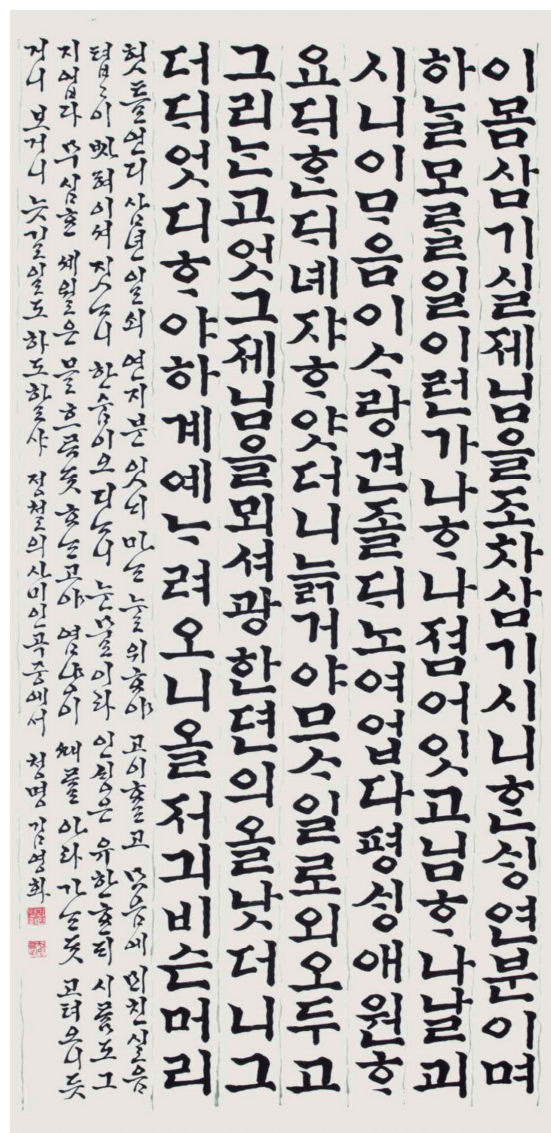
제 8 회 대 한 민 국 삼 봉 서 화 대 전

부문대상



성덕 류경희 / 흙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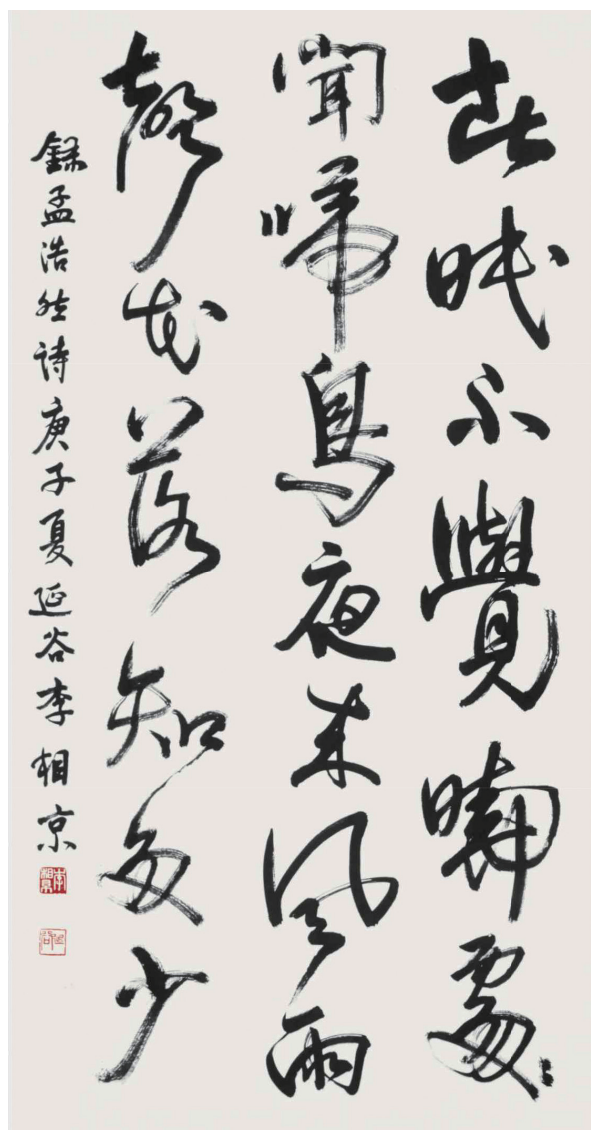
우수상



청명 김영화 / 정철의 사미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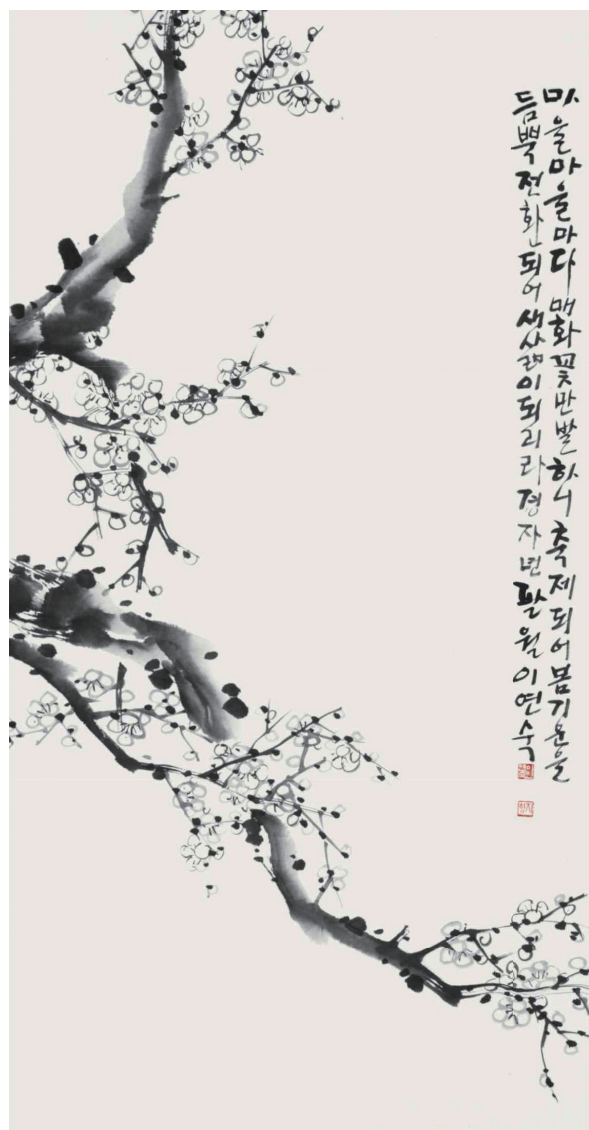
제 8 회 대 한 민 국 삼 봉 서 화 대 전

우수상



연곡 이상경 / 봄날의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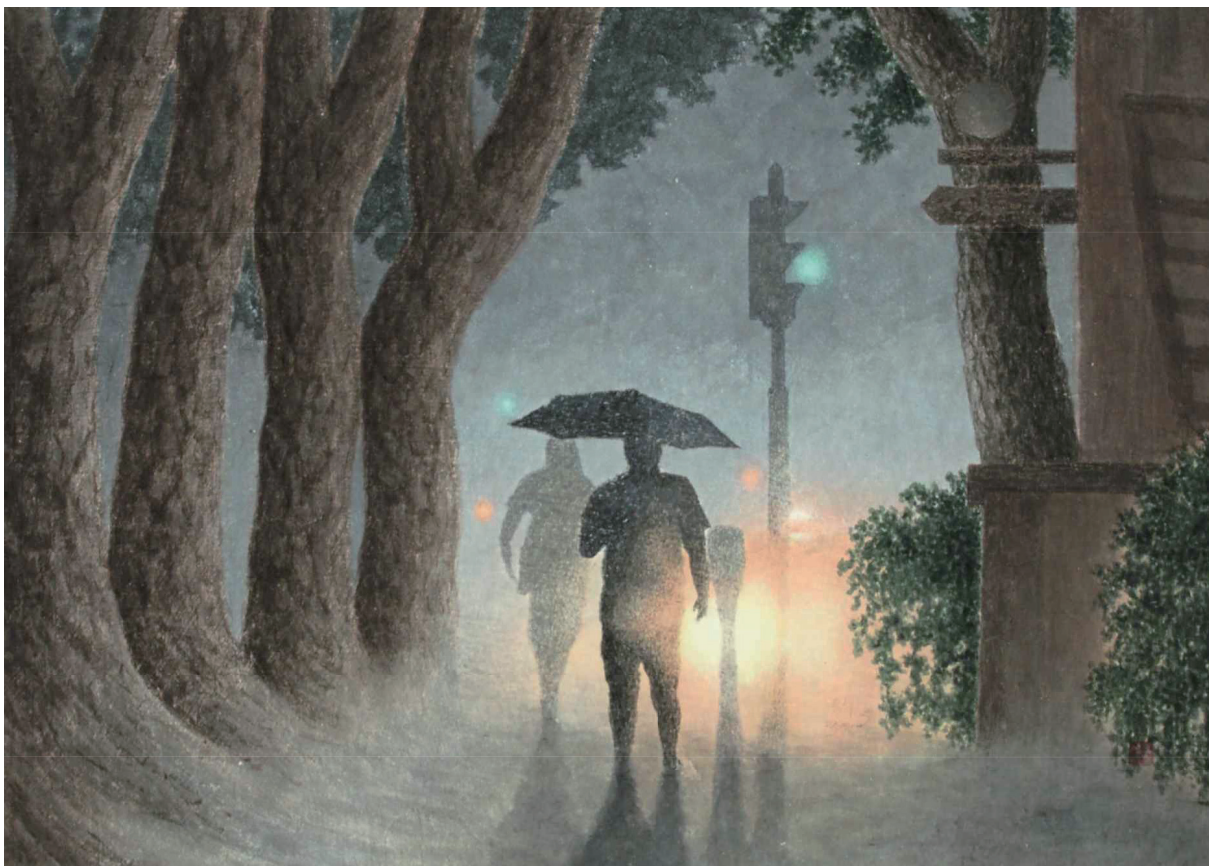
우수상



지향 이연숙 / 매화

제 8 회 대 한 민 국 삼 봉 서 화 대 전

우수상



청한 홍종구 / 그날의 추억

소/사/별/화/보

- ① 2020 평택문화원 임시총회
- ② 평택학연구소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위촉식
- ③ 2020 평택학 학술대회
- ④ 2020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학술세미나
- ⑤ 충새록 발굴 학술설명회
- ⑥ 제48회 문화의 날 기념식



①



②



소 / 사 / 벌 / 화 / 보

- ① 2020 정월대보름 오롱마을 정제
- ② 2020 율북리 당제
- ③ 2020 평택야행
- ④ 2020 우리고장 알기 프로젝트
- ⑤ 2020 진위향교 나들이
- ⑥ 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 ⑦ 2020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연구 '인생(The Life)'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길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54년 설립되었으며,

여러 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평택의 고유문화 개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지역사의 조사 · 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문화 관련 자료수집 · 보존 및 보급
- ▶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

- ▶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 소사별단오제
 - 평택시 정월대보름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 ▶ **웃다리문화촌 운영**
 - 박물관, 전시실, 운동장 등 시설운영 · 대관
 - 문화학교 및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 주말농장

- ▶ **지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 평택학연구소 운영
 - 지역사 발간 및 연구사업
 - 마을조사 사업
 - 지역사 사료 수집

-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유산 활용사업
 - 노을동요제
 - 평택시티투어
 - 평택학시민강좌

- ▶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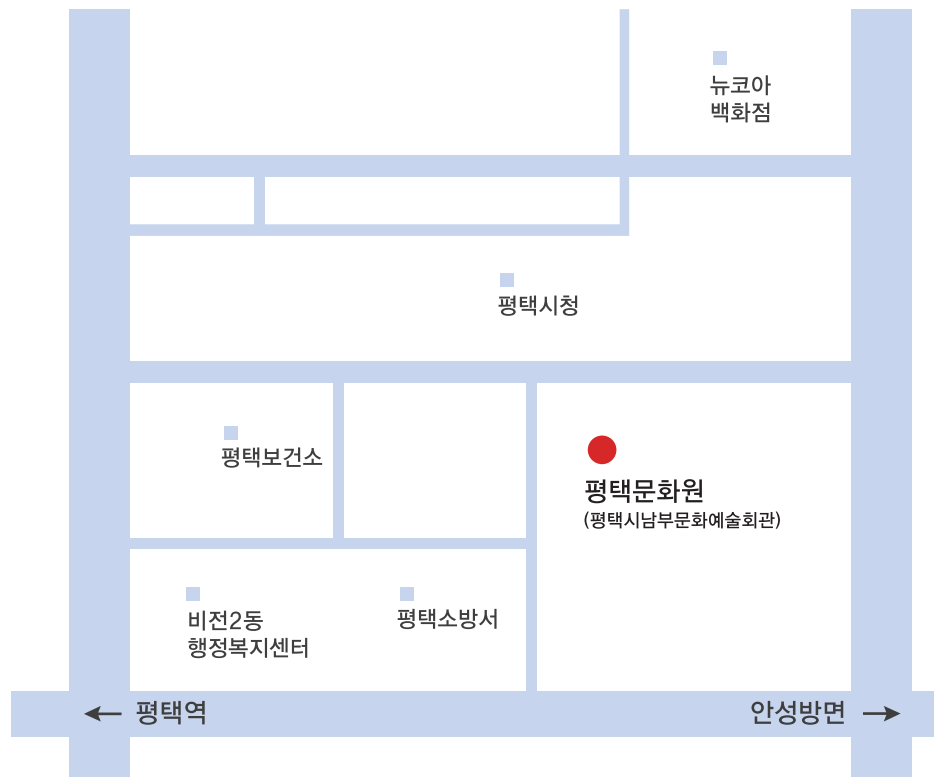
평택문화원의 연혁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3월 1일	제14대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취임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진흥표창(평택문화원장)
2014년 12월 19일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2년 3월 1일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취임(재임 2012. 3. 1~2020. 2. 29)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평택문화원장)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평가 표창 수상(문화부장관상)
2007년 10월 27일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 수상(문화부장관상)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을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3년 7월 28일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재임 2003. 7. 28~2012. 2. 29)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년 7월 27일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평택시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통합 초대원장,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유재호 취임(재임 1995. 7. 27~2003. 7. 27)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남부문화회관 내)
1993년 2월 26일	제7대 평택시문화원장 조중환 원장 취임(재임 1993. 2. 26~1995. 7. 26)
1989년 10월 11일	평택문화원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변경)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평택시종합운동장 내)
1982년 12월 15일	제4~6대 평택군문화원장 김창복 원장 취임(재임 1982. 12. 15~1993. 7. 26)
1978년 2월 25일	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주상 원장 취임(재임 1978. 2. 25~1982. 12. 14)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 인가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제1~2대 평택문화원장 민형식(재임 1971. 2. 2~1978. 2. 24)
1954년	평택문화원 설립(설립자 장순영, 사설문화원)

평택문화원 임직원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원장	이보선	(주)주광에너지 대표이사	이 사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부원장	최창목	(주)대한공업사 대표이사		안도향	보스턴어학원장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박용민	로알안경원 대표
	신태식	(주)현대AVC 사장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이재덕	(주)삼보텔레콤 대표이사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감사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황춘미	케이디할부사 평택법인대표
	배우학	베스트인슈&렌트카 대표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안광훈	하나농원 · 하나이벤트 대표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이충원	(주)씨앤아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유범동	캠프햄프리스 수석 공보관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김복남	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장
친목위원장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김종구	가우디미술학원장
이 사	김미영	前 국제로터리 3750 총재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최승규	굿모닝병원 행정부원장
	오중근	굿모닝병원 이사		이형범	디자인창고 대표
	한상희	(주)동양툴테크 대표이사		홍인석	신성컨설팅 대표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당연직	평택시 국제문화국장
	이필욱	(주)마들렌식품 대표이사	직 원	오민영	사무국장
	유평림	前 평택택시 상무이사		유연주	경영지원부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최희련	
	여운정	금호타이어 원곡대리점 대표		강수진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최인경	
	김혜영	前 평택시의회 의원		조건희	
	이신복	교보생명 PB센터장		기우찬	문화사업부
	최창환	목화화원 대표		최치선	
	김규동	(주)케이와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황수근	
	김성환	(주)에이치 코리아 대표이사		강하늘	
	공서구	알리앙스 대표			

평택문화원 오시는 길



대표전화 031.655.2002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제36호 소사벌 원고 모집

평택의 종합문예지 <소사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글과 작품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작품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사벌>에 실어 드립니다.

<소사벌>에 작품과 글을 보내주실 분께

- 원고마감 : 2021년 8월 31일
- 원고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 전화 : 031.655.2002 전송 : 031.654.8807
- 이메일 : ptmhw@naver.com

※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
※ 원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을 기부하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평택의 미래가 됩니다.



<생활자료 및 평택관련 자료수집>

의식주생활 의복, 식기류 등

생활기록 사진, 일기장, 가계부, 졸업앨범

새마을운동기록물 등

상업 저울, 바구니, 나무간판, 기념품, 사진 등

각종 캠페인 자료 포스터, 기념품, 사진 등

기타 평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주소 (17901)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031.656.0600

팩스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 기증기탁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조사 후 곧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